

연설술 2권(B)

1장. 서론

1377b 어떤 것들로부터 권고하고 만류하고, 칭찬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변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의견들이나 전제들이 그러한 것들의 입증을 위해 유용한지는 앞서 말한 대로다. 엔튀메마[연설술의 추론]는, 말하자면 연설의 각 종류마다 따로, 바로 그것들에 [20] 관한 것이고 그것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연설술은 판정을 위해 있으므로(사람들은 조언들을 판단하고, 재판도 판단이다), 연설이 논증적이고 믿을만하도록 연설에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설자] 자신과 판단자를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내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설득과 관련하여, — 특히 [25] 조언할 때에, 그 다음으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 연설자가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가 청중에 대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이에 덧붙여 청중이 또한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설자가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보이는지는 [30] 조언과 관련하여 더 유용하고, 청중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는 재판과 관련하여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이라도 청중이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분노하느냐 온화하느냐
1378a 에 따라 같지 않고, | 전혀 다르거나 크기[중요성]가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적게 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반대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얻으리라는] 희망에 찬 사람에게는, 만일 그런 미래의 것이 즐겁다면, 그것이 있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일 것이라고 보이지만, [5] 무감하거나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와 반대다.

연설자들이 신뢰를 받는 이유는 세 가지다. 실로, 이것들은 증명과 별개로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는 이유들이다. 그것들은 현명과 덕과 호의이다. 연설자들은 그들이 연설하거나 조언하는 것들과 관련하여 세 가지 모두 때문에 [10] 또는 그것들 중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어리석음 때문에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올바르게 생각하더라도 악함 때문에 생각하는 바를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명하고 유덕하지만 호의를 갖지 않아서 최선의 것들을 알면서도 이것들을 조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가능성 말고는 없다. 따라서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15] 사람은 청중에게 신뢰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명하고 유덕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는 수단[지침]들은 덕들에 관해 분류했던 것들에서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동일한 수단들을 써서 그러한 사람들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의와 친애에 관해서는 감정에 관한 논의에서 말해야 한다.

사람들은 분노, 동정, 두려움 등과 [20] 이것들에 반대되는 것들과 같은 감정들을 통해 변화여 판단을 바꾸고, 그것들에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따른다. 각 감정에 관련하여 세 가지 점으로 나뉘[살펴보아야]야 한다. 이를테면, 분노와 관련하여, 분노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는지, 어떤 일로 분노하는지로 나뉘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나 둘을 [25] 안다고 하더라도, 셋을 모두 알지 못한다면, 분노를 [청중에게] 심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른 감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럼, 방금 말한 방식으로 나누면서, 이전 논의에서 했던 방식대로 감정들에 관해서도 전제들을 열거해 보자.

2장. 분노

[30] 분노를, 자신이나 자신에 속한 것들 중 어떤 것에 대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명백한 무시(無視)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이 따르는 [명백한] 복수 욕구라고 해 두자. 만일 분노가 그런 것이라면, 분노하는 사람은 항상 특정 개인에 대해, 인간이 아니라 예컨대 클레온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인이 자신이나 자신에 속한 것들 중 어떤 것에 어떤 일을 했거나 |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378b 그리고 모든 분노에는 일종의 즐거움, 즉 복수하리라는 기대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하는 것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즐겁고, 누구도 자신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피하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능한 것들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5] 다음은 잘 말한 것이다.

흘러내리는 꿀보다 훨씬 더 달콤한 그것[분노]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연기처럼] 붙어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즐거움은 그로 말미암아 [분노에] 따르기도 하고, 복수에 대한

생각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따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때 일어나는 영상은, [10] 꿈속의 영상처럼, 즐거움을 가져온다.

무시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 갖는 의견이 드러난 결과이다(우리는 나쁜 것들과 좋은 것들, 그리고 이 둘의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사소한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시의 종류[형태]는 세 가지, [15] 즉 경멸, 짓궂음, 모욕이다.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을] 경멸하는 사람은 [그를 또는 그것을] 무시한다(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경멸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짓궂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짓궂음이란 자신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남의 바람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20]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짓궂은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남이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그렇게 생각한다면 두려워서 그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남이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기(그렇게 생각한다면 친구가 될 궁리를 할 것이다) 때문이다.

[남]을 모욕하는 사람도 [남]을 무시한다. 모욕이란 당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행하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도 [25] 자신이 다른 어떤 것을 또는 생길법한 어떤 것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즐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양갓음하는 사람은 모욕하고 있지 않고, 복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욕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의 원인은 남에게 나쁘게 대함으로써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부유한 사람들은 모욕을 잘 한다. 그들은 남을 모욕함으로써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명예는 모욕의 특징이고, [30] 남에게 굴욕을 주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서든 나쁜 것으로서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런 명예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분노하며 말한다.

[아가멤논은] 나에게 굴욕을 주었습니다. 나의 상(賞)을 빼앗아 제 것으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설술 2권(B)

[그는 나를] 아무런 명예도 없는 거류민처럼 [대했습니다.]

[35] 이런 [굴욕스런] 일들이 자신이 분노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출생, 능력, 덕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훨씬 우월한 면에서 1379a | [자신들보다] 열등한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금전 면에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연설 면에서 말에 능한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보다,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배될 만한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존경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 것도 그래서다.

[5] 제우스가 양육한 왕들의 격분은 크다.

그리고

하지만 그는 훗날까지도 원한을 품는다.

왜냐하면 그들[왕들]은 [무시당한] 우월감 때문에 분개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에 분노한다].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이 몸소 또는 자신에 속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전에] 잘 대해 주었거나 [지금] 잘 대해주고 있는, 또는 [지금] 잘 대해주려고 하거나 [전에] 잘 대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10] 이제,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 때문에 분노하는지, 그러한 점들로부터 이미 분명해졌다. [첫째.] 그들은 고통을 당할 때 분노한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일이든 그것을 정면으로 방해할 때, 예를 들어,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을 방해할 때, 그리고 정면으로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일 때 [분노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반대로 일할 때, [15] 협력하지 않을 때,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데 다른 어떤 식으로 귀찮게 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분노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목이 마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욕망하고 있는데 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고, 쉽게 흥분한다. 특히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다.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은 병에 관련하여, [20] 가난한 사람은 가난과 관련하여,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 관련하여,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다]. 다른 경우들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밖에 누군가가 다른 어떤 것을 무시할 때,> 다른 경우들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는 현재의 감정에 의해 각자의 분노로 가는 길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대접]을 기대하고 있었을 때 [쉽게 분노한다]. [25] 아주 예기치 않은 일이 한층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는 아주 예기치 않게 원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반가운 것과도 같다. 이로써, 어떤 계절, 시간, 마음 상태[기분], 나이에 분노에 치우치기 쉽고, 어느 곳 어느 때에 그런지 분명해졌고, 그러한 조건들에 더 처해 있을수록, 더 분노로 치우치기 쉽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30]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분노에 치우치기 쉽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웃고, 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을 모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욕의 표시인 것과 같은 것들로써 해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를 입히는] 행위들은 양값음도 아니고 행위자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모욕에 의한 행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35]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중시하는 것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그것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예를 들어, 철학에 긍지를 갖는 사람들은 누군가 철학을 그렇게 대할 때, 그리고 용모에 긍지를 갖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용모를 그렇게 대할 때 [분노한다]. 다른 것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없거나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의심, 또는 그래 보인다는 의심이 들 때, 한층 더 | 그렇게 분노한다. 왜냐하면

1379b 면 자신이 남에게 놀림 받는 부분들에서 자신이 [실제로] 우월하다고 확신할 때에는, [그런 놀림에]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보다는 친구인 사람들에 대해 더 [분노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친구들로부터 대접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잘 대접 받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존경하거나 배려해왔던 사람들이, [5] 다시는 그렇게 교제하지 않을 때, 그들에 대해 [분노한다]. 그들한테 경멸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니라면 [전처럼] 똑같이 대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답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 동등하게 답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그리고 자신들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들이 열등한 사람들일 때, [사람들은 분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경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의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경멸하고, 앞의

사람들은 [10] 열등한 사람들로부터 잘 대접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일로 무시할 때, 그들에 대해 더 [분노한다]. 왜냐하면 무시에서 비롯하는 분노는 무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일어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거니와, 열등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 무시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들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거나 잘 해주지 않을 때, 그리고 반대되는[나쁜] 것들을 말하거나 행할 때 더욱 더, 그리고 안티폰의 [비극] 플렉시포스가 멜레아그로스에 대해 [15] 분노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에 무감각할 때, 그들에 대해 [분노한다]. 왜냐하면 무감각은 무시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배려하고 있다면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행들에 기뻐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행을 당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그러한 것은 적의 표시이거나 무시하는 자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20]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에 귀 기울이거나 그것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이나 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친구라면 함께 마음 아파하고, 다들 자신들의 결점들을 보고서 다들 마음 아파하는 법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다섯 부류의 사람들 — [자신들과] 명예를 겨루는 상대들, [자신들이] 경탄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경탄 받길 바라는 사람들, [자신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25] [자신들 앞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 면전에서 자신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누군가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신들을 무시한다면, 분노는 더욱 클 것이다. 그리고 부모, 자식, 처, 하인처럼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무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어긋난 것이기 [30] 때문이다. 진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빈정거리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빈정거림은 일종의 경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잘 대해주면서 자신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한다]. 왜냐하면 이것,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데 누구는 예외라는 그들의 생각은 일종의 경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망각도,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이름을 잇는 것도 화를 내게 한다. [35] 망각도 무시의 표시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망각은 무관심에 의해 생기고, 무관심은 일종의 무시이기 때문이다.

1380a | 이로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 어떤 마음 상태에서, 어떤 이유들로

분노하는지 동시에 논의되었다. 그리고 연설자가 연설을 통해 청중을 분노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그의 반대자들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이 있고 그러한 분노의 대상인 사람들이라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5] 분명해졌다.

3장. 진정

1380a 분노함은 진정함에, 분노는 진정(鎮靜)에 반대되므로, [분노가] 진정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어떤 자들에 대해 그들이 진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 때문에 그들이 진정하는지를 [연설자는] 파악해야 한다. ‘진정됨’을 분노가 가리았아 잠잠해지는 것이라고 해 두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자들에 [10] 대해 분노하고, 무시하는 의도적인 것이라면, 분명히 그러한 것들 중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나 자기 의지에 반(反)하여 하는 자들이나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 대해 사람들은 진정한다. 그리고 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의도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한테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시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15]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분노를 멈추기 때문이다. 이 점은 노예들의 처벌에서 확인된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대꾸하며 [잘못을] 부인하는 노예들은 더 [엄하게] 처벌하지만,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노예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멈춘다. 그 이유는 명백한 점들을 [20] 부인한다는 것은 수치심이 없다는 것이고, 수치심이 없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한다는 것, 즉 경멸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크게 경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는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몸을 낮추고 말대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진정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인정하고, 열등한 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결코 [상대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몸을 낮추는 자들에 대해서는 [25] 분노가 그친다는 사실을, 개들은 주저앉은 사람들을 물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준다. 그리고 진지한 자들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왜냐하면 진지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경멸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베푼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과거에] 베푼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그리고 화내지 말라고 비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그들은 몸을 더 낮추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선량한 사람들, 자신들과 같은 성질의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는 자들, 우롱하지 않는 자들, [30] 무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일반적으로, 진정시키는 것들은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 상태에 있는 한, 분노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면서 이와 동시에 분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노에 차서 행동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거나, [35] 덜 분노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하는 사람은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는 고통이 없지만, 1380b | 분노는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어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분명히, 사람들은 분노와 정반대되는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진정한다. 예를 들어, 놀 때, 웃을 때, 잔치를 벌일 때, 만사가 순조로울 때, 성공할 때, 만족스러울 때, 일반적으로 무통(無痛)의 상태와 모욕으로써 얻지 않은 즐거움의 상태에, [5]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좋은 희망의 상태에 있을 때. 더 나아가, 시간이 흘러 분노의 절정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다]. 시간은 분노를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실행한 복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더 큰 분노를 멈추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이 분노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왜 변명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필로크라테스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옳았다. “그럼 언제입니까?”[라고 물으니], [10] [그는] “다른 사람이 중상 받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았을 때에는 진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에르고필로스의 경우에 일어났던 일이다. 칼리스트네스에게보다 그에게 더 분노했지만, 전날에 칼리스트네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를 석방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죄 선고를 내린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그리고 분노한 자신들이 가했을 법한 것보다 더 큰 해를 입은 [15] 자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이미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고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 분노는 바로 이런 것이었

다 — 앓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로써 처벌해야 한다. 노예들도 이렇게 처벌 받을 때 덜 [20] 분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처벌이 누구에 의한 것이고 누가 겪은 것[불의]의 대가인지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사람들은 진정한다. 분노는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분노에 대한 정의(定義)로부터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구는 잘 지어진 것이다.

[그대(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은]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였다고 말하시오.(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9권 504행)

누구에 의한 것이고 어떤 일의 대가인지를 [폴리페모스]가 감지하지 못 한다면 복수한 것이 못 된다는 생각에서다. [25] 그래서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며,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하지 않는다. 뒤의 사람들은 마지막의 것을 겪었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주고자 하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죽은 자에 대한 분노를 그치길 바라면서 시인[호메로스]은 헥토르에 대해 잘 말했다.

[30] 그는 분노하여 무감각한 흙덩이만 옥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24권 24행)

그러므로 분명히, [청중의 분노를] 달래길 바라는 사람[연설자들은 그러한 토포스]지침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은 그러한 사람들로 내세우고, 청중의 분노를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어려워할만한 자들이나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나 자기 의지에 반하여 행동했던 자들이나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는 자들로 내세워야 한다.

4장. 사랑과 증오

[35]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는가? 그리고 왜 그런가? 이런 점들을 친애와 사랑함을 규정한 다음에 말해 보자.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1381a 바라다’는 것, 그리고 | ‘힘닿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 두자. 친구란 사랑하고 사랑을 돌려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들이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전제해 둔다면, 친구는 좋은 것들을 함께 즐기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5]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모두 기뻐하고, 그에 반대되는 일들에는 괴로워하고,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은 바람[의욕]을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에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 그리고 같은 친구와 같은 적을 가진 자들이 [친구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것들을 바랄 수밖에 없고, [10] 그래서 자신에게 바라는 것을 타인에게도 바라는 자는 그 타인에게 친구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나 자신들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 크게, 열성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자신들 대신 — 잘 해줬던 자들을, 또는 잘 해주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친구들의 친구들을,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리고 자신들한테 [15] 사랑 받는 사람들한테 사랑 받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에게 적이고,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자신들한테 미움 받는 사람들한테 미움 받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 자들 모두에게도 자신들의 경우와 같은 것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자신들에게 좋은 것들을 바라고, 이는 친구의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금전과 관련하여, [신체] 안전과 관련하여 [20]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후하고 용감한 자들을, 정의로운 자들을 존경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타인에 기대어 살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노동에 기대어 사는 자들, 이들 중에서도 농경에 기대어 사는 자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중 특히 자영업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그리고 절제 있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이들은 부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25]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우리가 친구가 되길 바라는 자들을, 이들도 그것을 바란다면, [사람들은 사랑한다]. 덕성이 훌륭한 자들, 그리고 —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자신들에 의해 경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자신들을 경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 평판이 좋은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더 나아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즐거운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무던하고, [30] 흠을 캐러들지 않고, 이기려 들지도 싸우려 들지도 않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다(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은 모두 다투길 좋아하고, 다투길 좋아하는 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반대되는 것들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담을 할 줄 알고 농담을 받을

줄 이는 자들이 [친구다]. 왜냐하면 놀림을 당할 줄도 알고 적당히 놀릴 줄도 아는 그들은 양쪽으로 이웃에 대해 가진 것과 [35]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있는 좋은 점[장점]들을,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 점들을 1381b 칭찬해 주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리고 외모, 복장, 생활 전체가 청결한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리고 [상대가 저지른]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선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도 않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둘 다 흠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피해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의] 불만을 [5] 새겨 두지도 않고, 쉽게 달래지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남들에 대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자신들에게도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험담하지 않고, 이웃이나 상대에 관련된 점들을 자세히 알지 않고, 그들의 좋은 점들을 자세히 아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좋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처신하는 법이다. 그리고 분노하거나 [어떤 일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지 않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10]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투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예를 들어, 자신들을 경탄하고, 유덕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주고, 자신들[과의 교제]을 기뻐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특히 자신들이 경탄 받기를 아주 바라고 있거나 유덕하거나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되길 바라는 점들과 관련하여 그렇게 느낀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리고 [자신들과] 비슷하고, [15] 같은 일에 몰두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단, 그들이 너무 방해가 되지 않고, 같은 일로 생계를 꾸려가지 않아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도공이 도공을 [시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욕망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공유할 수 없다면, 앞의 경우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걸보기에 잘못된 것[행위]들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태도로 대하는 자들을, [20] 이들이 경멸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사랑한다]. 자신들이 실제로 잘못된 것[행위]들을 수치스러워하며 대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자신들과 명예를 겨루는 자들을, 자신들이 경쟁을 받아도 질투를 당하려 하지는 않는 자들, 이들을 사람들은 사랑하거나 그들의 친구이길 바란다. 그리고 더 큰 나쁜 것들이 자신들에게 닥치지 않을 거라면, 협력하여 좋은 것들을 얻도록 해 주고 싶은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리고 있을 때나 [25] 없을 때나 한결같이 상대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은 다들 죽은 사람[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친구를 무척

좋아하고, [곤경에 빠진 친구를] 내버려두지 않는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사람들은 좋은 자들 중에서도 특히 친구로서 좋은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꾸밈없는[정직한] 자들을 [사람들은 사랑한다]. 자신의 결점까지도 말하는 사람들이 [30] 그러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들 앞에서는 겉보기에 잘못된 것[행위]들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치스러워하는 자가 친구가 아니라면,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자는 친구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한다].

사랑의 종류는 동료애, 가족애, 친족애 등이다. [35] 은혜, 요구받지 않고서도 은혜를 베푸는 일, 베푼 뒤에 드러내지 않는 일은 사랑을 산출하기 쉽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382a | 적대감과 증오함에 관해서는,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분노, 짓궂음, 비방[의 행위]이다. 그런데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행위]들로부터 비롯하지만, 적대감은 자신을 향한 것이 없어도 성립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성질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를 증오하기 [5] 때문이다. 그리고 분노는 항상 개별적인 것들에 관련되지만, 예를 들어 칼리아스나 소크라테스에 대해 일어나지만, 증오는 유(類)들에도 관련된다. 누구나 도둑이라든가 밀고자를 증오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지만, [유(類)에 대한] 증오는 치유될 수 없다. 그리고 분노는 [상대에게] 고통을 피하지만, 증오는 [상대에게] 악을 피한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분노를] 감지하길 바라지만, 증오하는 사람에게는 이 점이 상관없기 때문이다. [10]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모두 감지되지만, 가장 큰 악(惡)들 — 불의(不義)와 어리석음 — 은 가장 적게 감지된다. 악이 곁에 있다고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노는 고통을 동반하지만, 증오는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다. 분노하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만, 증오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는 상황이 많이 변할 때 [상대를] 동정하지만, 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15] 전자는 자신의 분노를 산 사람이 [자신이 겪은] 고통을 돌려받길 바라지만, 후자는 상대가 없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토포스]들로부터, (a) [연설자가] 친구이거나 적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증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 수 있고, (b) [그들이 친구라거나 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분노나 적대감 때문에 다른 [감정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자가 선택하는 [감정의] 편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5장. 두려움과 안심

[20] 사람들은 어떤 성질의 것들을, 어떤 사람들을,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가? 이 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두려움은 다가오는 파괴적인 또는 고통스러운 악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나오는 일종의 고통이나 동요(動搖)라고 해 두자. 모든 악들이 두려움의 대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정(不正)하거나 우둔하게 될 것인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큰 고통이나 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그것도 이것들이 멀리 있지 않고 [25] 곧 닥칠 것처럼 가까이 있어 보일 때에,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모든 사람들은 장래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이런 것이라면, 파멸을 일으키거나 큰 고통으로 연결되는 해(害)를 끼치는 데 큰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두려운 것들임에 [30]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조짐도 두려운 것들이다. 두려운 것이 가까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 즉 두려운 것의 접근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조짐]들은 어떤 일을 할 힘이 있는 자들의 적대감과 분노이다(분명히, 그들은 [크나큰 해를 가할] 의욕과 힘이 있고, 그래서 그 실행이 [35] 임박해 있다). 힘을 가진 부정(不正)도 그러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것] 1382b 의도적으로 | 선택함으로써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욕당한 탁월성도 힘을 가질 때 그러한 것이다(분명히, 모욕당했을 때 항상 [복수]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지금 그럴 힘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할 힘이 있는 자들의 두려움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사람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편이고, 이익에 약하고, [5] 위험에 처하면 겁을 내기 때문에, 타인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대체로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의] 공범자들도 밀고할까봐 또는 곤경에 빠뜨릴까봐 [그 사람에게] 2 두려웠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를 힘이 있는 자들은 부정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두렵다]. 대체로 사람들은 할 수 있을 때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을 당한 자들이나 부정을 [10]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두렵다]. [보복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그대로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므로, 그들이 힘이 있을 때에는 두렵다. 그러한 것도 두려움을 이루는 것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일의 경쟁 상대들도, 그것이 양쪽에 동시에 공유될 수 없는 한, [두렵다].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는 항상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게 두려운 [15] 자들도 [사람들에게 두렵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게조차 해를 가할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는 훨씬 더 해를 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자신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두렵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제거한 자들과 자신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도 [사람들에게 두렵다]. 그들은 이미 두려운 상대이거나, 아니면 힘이 커졌을 때 두려운 상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로부터] 부정을 당한 사람들과 적들 또는 경쟁 상대들 중 성급하고 솔직한 [20] 사람들이 아니라, 온화하고 본심을 숨기는 음흉한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두렵다]. [그들의 공격이] 가까워졌는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공격이] 멀리 있다는 점이 어느 때에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두려운 것들은 [이것들에 관련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잡을 수 없고, 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이 아니라 반대 자들의 손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한층 더 두려운 것들이다. 그리고 구제할 방법이 없거나 쉽지 않은 것들도 [사람들에게 두렵다]. [25] 한 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하려 했을 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모두 두려운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이 두려움을 주는 것들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거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말해 보자. 두려움이 어떤 파멸적인 불행을 당할 것이라는 [30] 예상을 동반한다면, 분명히 어떠한 불행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때 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그러한 것들을, 그 때, 두려워한다. 큰 행운 속에 있는

1383a 사람들과 |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할]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경솔하다. 그들의 부, 능력, 많은 친구, 권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다). 이미 죽을 정도로 얻어맞은 사람들처럼, 끔찍한 일들을 죄다 겪었다고 생각하고 장래에 대해 [5] 냉담해진 사람들도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있으려면,] 근심하는 것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 같은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해 준다. 즉, 두려움은 사람들을 속고하도록 만들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속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설자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나올 때에는 그들을 그러한 사람들로, 즉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꼈으니까) 그들이 그러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10] 사람들이라고, 내세워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을 [현재] 느끼거나 [과거에] 느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리라고 생각치도 못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치도 못한 일들과 관련하여, 생각치도 못한 때에 그렇거나 그랬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두려움과 두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지 분명해졌으므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또한 [15] 안심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안심하는지, 그리고 안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안심은 <두려움에 반대되고, 안심시키는 것은> 두렵게 하는 것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심은 [위험들로부터] 구해주는 것들이 가까이 있고, 두려운 것들이 없거나 멀리 있다는 상상이 동반된 희망이다. 멀리 있는 두려운 것들과 가까이 있는 구해주는 [20] 것들은 안심시키는 것들이다. 그리고 바로 세워주는 것들과 도와주는 것들이 많거나 크거나 둘 다일 때, 그리고 부정(不正)을 당하지도 행하지도 않았을 때, 경쟁 상대들이 전혀 없거나 힘이 없거나 힘이 있더라도 친하거나 잘 대해 줬거나 잘 대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안심한다]. 또는 자신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거나 [25] 더 힘이 있거나 둘 다일 때, [사람들은 안심한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스스로 안심한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좌절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나 끔찍한 일들에 여러 차례 빠져들었지만 빠져나왔을 때. 인간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 시련을 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것이 있음으로써 —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상 위험에서, [30] 폭풍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미래의 일에 관련하여 안심하고, 경험을 통해 [위험을 극복할] 수단을 갖춘 사람들도 안심한다. 그리고 [자신

들과 비슷한 자들에게, 열등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닐 때에도, [사람들은 안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겼던 자들, 바로 이들이나 이들보다 더 우월한 자들이나 그들과 비슷한 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더 큰 것들이 [35] — 이런 것들을 우월하게 갖춘 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사람들은 안심한다]. | 재산, 신체, 친구, 토지, 전쟁 장비, 이 모든 것들 또는 그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의 양과 힘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아무에게, 또는 다수에게, 또는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안심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들과 [5] 신들의 관계가, 여타 관계뿐만 아니라 [특히] 전조(前兆)나 신탁(神託)에 걸린 관계가 좋을 때에도, [사람들은 안심한다](예를 들어, 부정을 행하지도 않는데 부정을 당한다면, 그들은 분노를 일으키고, 이 분노는 [그들을] 안심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신이 부정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일에 착수하면서 어떠한 역경도 격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성공하리라고 생각할 때에도, [사람들은 안심한다].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것들과 안심시키는 것들에 관해 논의했다.

6장. 부끄러워함과 부끄러워하지 않음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렇고,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그런가? 이 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부끄러움은 현재, 과거, 미래의 악한 것들 중 나쁜 평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관련된 일종의 고통이나 동요(動搖)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15] 그와 같은 [악한] 것들에 관련된 일종의 무시(無視)이자 무감(無感)이라고 해 두자. 부끄러움이 그렇게 정의된 대로라면, 부끄러움은 [남들이 보기에] 자신이나 자신이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악한 것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방패를 버리는 일이나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일처럼, 악덕에서 비롯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비겁함[이라는 악덕]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 맡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부정(不正)[이라는 악덕]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여자들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때 성관계를 갖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무절제[이라는 악덕]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이나 추한 것들로부터 또는 가난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처럼 힘없는 사람들로 부터 이득을 얻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송장에서 빼내간다.”는 속담이 나왔다. 이것은 부끄러운 이득욕과 [25] 인색[이라는 악덕]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도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보다] 덜 도와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게 돈을 빌리는 것, 상대가 돈을 갚아달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돈을 빌리려는 모습을 드러내도록 상대를 칭찬하는 것, 거절당했는데도 여전히 요구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인색[이라는 악덕]의 [30] 표시이고, 면전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것은 아첨[이라는 악덕]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의] 좋은 점들을 과도하게 칭찬하고, 나쁜 점들을 얼버무리는 것, 슬피하는 사람 앞에서 과도하게 슬피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종류의 다른 모든 것들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들은 아첨[이라는 악덕]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장자들이나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1384a 자신보다 더 힘없는 사람들이 견뎌내는 고생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은 연약함[이라는 악덕]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한테 신세지고, 그것도 여러 차례 신세지고도, 그가 잘 대해준 일을 나쁘게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릇이 작음과 비천함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5]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선전하고, 남의 업적을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허풍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성격의 다른 악덕들 각각으로부터 비롯하는 행위들이나 표시들 등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이것들은 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모든 사람들이, 또는 자신과 비슷한 모든 사람들이 — 여기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은 같은 민족, 동료시민, 동년배, 친척, 일반적으로 자신과 동등한 사람들을 말한다 —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좋은 것들을 자신만 [10] 갖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이와 비슷한 다른 것들을 남들만큼 받지 못함은 이미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자신 때문에 그렇다고 보일 때,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듯, 자신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것[결함]들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이미 그 일들은 더 자신의 악덕으로부터 [15] 비롯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불명예나 비난으로 이끌 일들을 겪고 있거나 겪었거나 겪게 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몸이나 부끄러운 행위들에 의한 접대와 관련된 일들이 그러한 것들인데,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무절제와 관련된 일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부끄러운 일이지만, 강요된 일들은 비자발적이다. [20] 왜냐하면 미지근한 저항이라든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함은 유약함이나 비겁함으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일들은 앞에서 말한 것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이다. 부끄러워함[수치]은 나쁜 평판에 — 이것에 따르는 결과들이 아니라 이것 자체 때문에 — 관련된 상상이고, 사람들이 평판에 신경 쓰는 것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므로, 필연적으로, [25]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중하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감탄하는 자들을, 자신들이 감탄하는 자들을, 자신들을 감탄해 주길 바라는 자들을, 자신들과 명예를 다투는 자들을, 자신들이 그 의견을 경시하지 않는 자들을 존중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명예로운 것들에 속하는 어떤 좋은 것을 가진 자들이나,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 중 어떤 것을 수중에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 감탄 받기를 바라고, [30] 또 그런 자들을 감탄한다. 이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이나 성적인 배움을] 간절히 원하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자들을 상대로 명예를 다툰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명한 자들을 진실을 말하는 자들로서 신경 쓰는데, 그러한 자들은 연장자들이나 교육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 벌인 일들과 밝은 대낮에 벌인 일들을 더 [부끄러워한다](그래서 “수치심은 눈 안에 있다.”는 속담이 나왔다). [35]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곁에 있게 될 자들과

1384b 자신들을 지켜보는 자들 | 앞에서 더 부끄러워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사람들은 그들의 눈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일들에 관련하여 비난을 받을 법하지 않은 자들 앞에서 [더 부끄러워한다]. 분명히 이 자들은 반대되는 일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한 자들 앞에서 [더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길 사람은 자신도 하는 일들로 이웃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5] 분명히, 자신이 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할 때 화를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내길 좋아하는 자들 앞에서 [더 부끄러워한다]. 어떤 일을 소문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문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겪었던 자들 — 이들은 [그 일을 말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이다 — 과 험담을 일삼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차 험담한다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롱하는 자들이나 비극작가들처럼 이웃들의 잘못을 [10] 들춰내는 것을 일삼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그들은 어떤 점에서 험담을 일삼는 자들이자 소문내기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패를 보인 적이 없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그들의 감탄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를 처음으로 부탁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거절하면서] 부끄러워한다. 그들 사이에서 아직 평이 나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최근에 친구가 되기 바란 자들이라든가(이들은 [15] 그들의 장점들을 보았던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우리피테스가 시라쿠사인들에게 준 답변은 맞았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자들 중 자신들의 어떤 잘못도 인지하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부끄러운 것[행위]들 자체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들의] 표시들도 부끄러워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성교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의 표시들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운 일들을 할 때뿐만 아니라, [20] 그런 것들을 말할 때에도 부끄러워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인들이나 친구들처럼 그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낼 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실이라는 점에서 크게 경시하는 의견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아무도 아이들이나 동물[야만인들]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 앞에서 각기 다른 일과 [25] 관련하여 부끄러워한다. 아는 자들 앞에서는 진실로 [잘못처럼] 생각되는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멀리서 온 [모르는] 자들 앞에서는 관습적으로[법적으로] [잘못처럼] 생각되는 일들을 부끄러워한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부끄러워할 것이다. 먼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던 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자신들로부터] 감탄 받는 자들이나 [30] [자신들이] 감탄하는 자들이나 [자신들이] 감탄 받고 싶은 자들, 자신들이 평판이 나쁠 경우 얻지 못할 도움을 들어줄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이 자들은 [자신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퀴디아스가 사모스 섬의 토지할당에 대해서 [민회에서] 연설했을 때처럼. 그는 아테네인들이 모든 그리스인들이 주위를 둘러싼 채로 서 있으면서, 자신들이 표결한 것들을 나중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35] 상상해 볼 것을 요구했다), 아니면 그들이 가까이 있거나,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을] 알아차리게 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은 경쟁
 1385a 자들이 |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꺼려한다. 경쟁자들은 [자신들을] 감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끄러움에 빠뜨릴 행위와 일들이
 — 이것들이 자신들의 것이든 조상들의 것이든 자신들과 근친 관계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것이든 — 있을 때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 때문에 [부끄러워한다]. 이 자들은 앞
 서 말한 자들, [5]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쳤든 조언을 해 주었든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자들, 또는 자신들과 명예를 다투는 여타 비슷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껴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리고 남의 눈에 띄게 되거나 [자신들의 부끄러운 일을] 아는 사람들과 밖으로
 나타낼 때, 사람들은 [10] 더욱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또한 작가 안티폰은 디오니소
 스로부터 태형(笞刑)을 받을 무렵, 자신과 더불어 죽게 될 사람들이 성문을 통과할
 때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들은 왜 얼굴을 가렸는가?
 내일 이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대들을 볼까 두려워서가 아닌가?”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그런 점들이 있다. 분명히, 부끄러워하지 않음에 관해서는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15]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장. 친절과 불친절

사람들은 어떤 자들에게, 어떤 일들에서, 자신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친절을 베푸는가? 이 점들은 친절을 규정한 다음에 분명해질 것이다. ‘친절을
 베푼다’고 말하는 뜻에서의 친절은,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해, 보답이 아닌 형태로 행하는
 봉사라고 해 두자. 친절은 [20] 받는 자가 그것을 아주 필요로 하거나, 아주 중요하
 고 얻기 힘든 것들을 필요로 하거나, 그러한 [중요하고도 힘든]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
 로 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 혼자이거나 최초이거나 가장 많이 주었을 때, 클 것이다.
 그리고 필요는 욕구이고, 그것은 욕구들 중에서도 특히, 갖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고통이 동반되는 욕구이다. 이러한 [고통이 동반되는] 욕구들은 사랑이라든가 신체가
 고통을 느끼거나 위협에 처했을 때 느끼는 것들 같은 욕망들이다. 위협에 처한

자도 고통을 [25] 느끼는 자도 욕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할 때나 망명해 있을 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리케이온에서 [다친 사람이나 부랑인에게] 돛자리를 깔아준 사람처럼, 그들의 봉사가 조그마할지라도, 필요성의 정도와 결정적인 순간으로 말미암아, 친절을 베푸는 자들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봉사는 특히 그러한 것[필요]들에 관련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과 동등한 것들이거나 그것들보다 더 큰 것들에 관련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듯, 어떤 자들에게 어떤 일들에서 [30] 어떤 마음 상태에서 친절이 베풀어지는지 밝혀졌으므로, 분명히 [연설자는] 어떤 자들은 그러한 고통과 필요의 상태에 있거나 있었고, 어떤 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때에 그러한 [친절한] 일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것[토포스]들로부터 [연설을] 준비해야 한다.

1385b 다른 한편으로, 어떤 점들로부터, 어떤 자들의 친절이 [친절이 아닌 것으로] 제거되고
 그들을 불친절한 사람으로 | 만들 수 있는지도 분명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거나 봉사했다는 점을(이런 것은 친절이 아니었다), 또는 그런 봉사가 우연히 일어났거나 강요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또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도움을 갚은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거기에서는 보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5] 친절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절을] 모든 범주들에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친절은 그것이 이 특정한 것[실체]나 이 만큼[양]이나 이러한 것[질]이나 어떤 때[시간]나 곳[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친절이다. 그리고 그들이 더 작은 봉사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적들에게 같거나 비슷하거나 더 큰 봉사를 할 때, 그것은 불친절의 표시이다. 분명히,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알면서도 쓸모없는 동사를 할 때, [그것은 불친절의 표시이다]. 자신이 쓸모없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아무도 [10]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8장. 동정

친절을 베풀고 베풀지 않음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다. 어떤 것들이 동정심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어떤 자들을 동정하고, 자신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동정하는지 말해 보자. 동정은 당할 이유가 없는 과멸적이거나 고통스러운 명백한

화(禍)에 대해 느끼는 일정한 고통이라고 해 두자. 이것은 어떤 개인이 자신이나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15] 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고통이고, 그것도 악이 가까이에서 나타날 때 느끼는 고통이다. 분명히, 동정을 느낄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나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어떤 화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화는 앞의 규정에서 말한 것이거나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것에 근접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은 동정을 느끼지 [20] 못한다(그들은 더는 당할 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당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엄청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동정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오만스레 군다. 그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떠한 화도 당할 수 없다고도 생각한다.

자신들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겪고 피해간 자들, [25] 나이 든 분들(이들은 현명함과 경험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 허약한 자들, 지나치게 겁이 많은 자들, 교육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잘 헤아릴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속하는 사람들도, 앞에서 말한 것들을 겪을지도 모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기의 감정 상태에, 예를 들어 분노나 안심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30] 그렇지 않고(이 두 감정들은 미래의 일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오만한 상태에 있는 자들도 그렇지 않다(오만한 사람들은 미래의 화를 헤아릴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감정들의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 너무 겁이 많은 사람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잔뜩 겁에 질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에 동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동정을 느낀다]. 어떤 사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1386a 사람은 | 모든 사람들이 화를 당할만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자신이나 자신에 속한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일어났다고 기억하거나 자신이나 자신에 속한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의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동정을 느낀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동정을 느끼는지 말했다. 사람들이 동정하는 것들은 [5] [동정에 대한] 정의(定義)로부터 분명하다. 고뇌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파멸적인 모든 것들, 파괴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우연으로 말미암은 모든 큰 화(禍)들이 동정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고통을 가져다주는 파멸적인 것들은 죽음, 신체 폭행, 상해, 노령, 질병, 영양 결핍이다. 우연으로 말미암은 화들은 [10] 친구가

없음, 친구가 적음(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라든가 친한 사람들로부터 갈라지는 일도 동정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못생김, 허약, 불구이다. 그리고 좋은 것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 것으로부터 나쁜 것[결괘]이 나오는 일도,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도 [동정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한 뒤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동정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오페이테스가 죽고 나서 그에게 페르시아 대왕으로부터 선물이 보내진 일이 그렇다. [15] 그리고 좋은 일이 전혀 생기지 않거나 생겼는데 누리지 못하는 일도 [동정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동정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고 지내는 자[知者]들을 동정한다. 단, 이들과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어야 한다(아주 친밀한 자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 것이기 [20]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시스도 처형 장소로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구걸하는 친구의 모습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뒤의 일은 동정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앞의 일은 끔찍한[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끔찍한 것은 동정심을 일으키는 것과 다르고, 동정심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고, 종종 그에 반대되는 감정[을 일으키는 데]에 유용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끔찍한 일이 자신들 가까이에서 있을 때에는 동정을 [25]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이, 성격, 습성, 지위, 집안이 비슷한 자들을 [동정한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같은 화(禍)가] 자신에게도 일어나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¹⁾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도 자신들과 관련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일어날 때 사람들이 동정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재난들은 가까이 있어 보일 때 [30] 동정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만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기억하는 일들이나 만 년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일들은 전혀 동정하지 않거나 [최근의 일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동정하지 않으므로, 필연적으로, 몸짓과 소리와 옷차림, 일반적으로 연기로써 효과를 올리는 사람들이 더 동정심을 일으킨다(왜냐하면 이들은 일어날 것으로든 일어난 것으로든 화를 눈앞에 뚝으로써 그것을 가까이 있는 것으로 [35]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금
1386b 일어난 일들이나 곧 일어날 일들이 | 더 동정심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자들의 옷차림 등과 같은 표시들, 행동들, 말들, 그리고 재난 중에 있는 자들, 예를 들어 임종 상태에 있는 자들에 속한 여타 사항들도 [동정의 효과를 올린다]. 그리고 특히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훌륭하게 행동하는 [5] 모습이 동정심을

1) 5장 1382b 22-28 참조.

일으킨다. 그 모든 것들은, 무고한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그 재난이 눈앞에 보인다는 생각에 [자신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동정심을 일으킨다.

9장. 의분

그리고 사람들이 의분(義憤)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정함에 가장 대립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의] 부당한 불운들에 고통스러워함에 [10] 어떤 의미에서 대립되고, [남의] 부당한 행운에 고통스러워함은 같은 [도덕적] 성격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감정은 선량한 성격의 특징이다. 부당하게 불운을 겪은 자들을 보면 공감하고 동정을 느껴야 하고, [부당하게] 행운을 얻은 자들을 보면 의분을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값어치[자격]에 어긋나게 일어나는 일은 부정(不正)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분을 신들의 일로 [15] 돌린다.

그러나 질투도 같은 방식으로 동정함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의분에 가깝고 이것과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 왜냐하면 질투도 혼란스런 고통이자 [남의] 행운에 겨냥된 것이지만, 이 행운은 부당한 자의 행운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하고 비슷한 자의 행운이기 [20]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화(禍)가 닥칠 것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바로 [행운을 얻은] 이웃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둘 모두에 똑같이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 이웃의 행운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나쁜 일이 있게 될까봐 고통과 동요(動搖)가 있다면, 질투나 의분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5]

그러나 분명히, 반대되는 느낌들이 그러한 감정들에 따를 것이다. 부당하게 불운을 겪는 자들을 보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마땅히] 불운을 겪는 자들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나 피에 굶주린 자들이 처벌받을 때, 선량한 사람은 아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30]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들에서는 기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땅히 행운을 얻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경우 모두 정당하고, 선량한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 왜냐하면 [선량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운을 얻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며,]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모두

같은 [도덕적] 성격에 속하고, 그에 반대되는 감정들은 반대되는 성격에 속한다. 같은 사람이 남의 불운을 보고 기뻐하고 [남의 행운을 보고] | 질투한다. 왜냐하면 1387a 남이 무엇인가를 얻거나 소유하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가 그것을 잃거나 그것이 소멸될 때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감정들은 동정을 막는 것들이고, 앞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동정파] 다르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동정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데 [5] 똑같이 쓸모가 있다.

먼저, 의분함에 관하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의분을 느끼고, 어떤 일들을 보고 자신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그러는지 말해 보자. 그리고 이것들 다음으로 다른 감정들에 대해서 말해 보자. 그런 점들은 앞에서 말한 것들로부터 분명하다. 의분이 부당하게 행운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고통이라면, [10] 먼저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에 대해 의분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정의롭거나 용기 있다거나, 어떤 덕을 갖게 될 때, 아무도 그에게 의분을 느끼지 않고(그것들에 반대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부나 권력, 그리고 이와 같은 종류의 것들, 즉 일반적으로 말해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본성적으로[선천적으로] 좋은 것들 — 예를 들어 좋은 태생과 아름다움 등 — 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15] 자격이 있는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얻은 자들에 대해] 의분을 느낄 것이다. 오래된 것은 본성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좋은 것을 가진 자들을 보고, 이들이 그것을 최근에 얻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잘 나갈 때, 의분을 느낀다. 왜냐하면 최근에[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예전부터 때대로 부자인 사람들보다 더 큰 [의분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관직, 권력, [20] 많은 친구, 좋은 자식 등을 [최근에] 얻은 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좋은 것이 그들에게 생겼을 때에도 특히 그렇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도 부로써 관직을 갖는 벼락부자들은 그 예전부터 부자인 사람들보다 더 큰 [의분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뒤의 사람들은 제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25] 앞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항상 어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진실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 결과 [최근에 그렇게 된] 다른 사람들은 제 것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것들 각각이 아무에게나 마땅하지 않고, 일종의 비례라든 어울림[조화]이 있다. 예를 들어, 무기의 아름다움은 정의로운 자가 아닌 용감한 자에게 어울리고, 특출한 결혼은 최근에 부자가

된 자들이 아닌 가문이 좋은 자들에게 [30] 어울린다. 따라서 좋은 사람인데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분을 살만한 일이다. 그리고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와 겨루는 것도 [의분을 살만한 일이다]. 특히, 양쪽이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렇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그[케브리오네스]는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와는 싸움을 피했다.
<그가 더 나은 자와 싸우려할 때면, 제우스가 그에게 의분했기 때문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11권 542행)

1387b | 그러나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와 겨룬다면, 예를 들어 음악가가 정의로운 사람과 겨룬다면, [그것은 의분을 살만한 일이다. 정의가 음악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 어떤 이유로 의분을 느끼는지 분명해졌다. 그것들은 앞에서 말한 것들과 [5] 이것들과 비슷한 것들이다. [첫째,] 사람들은, 최고로 좋은 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고 그것들을 얻었을 때, 바로 의분을 느끼기 쉽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비슷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과] 비슷한 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들이 착하고 덕망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의분을 느끼기 쉽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부당한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0] 명예욕이 있고 어떤 일들을 열망하고 있을 때, 특히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명예]들에 관련하여 명예욕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의분을 느끼기 쉽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자신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그런 [좋은] 것들 때문에 의분을 느끼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근성이 있는 자들, 비천한 자들, 명예욕이 없는 자들은 의분을 느끼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15]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들로부터, 불운하고 일이 잘 안되거나 실패하는 자들 중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지, 또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훤히 보인다. 왜냐하면 [앞의 것에] 대립되는[반대되는] 것들은 앞에서 말한 것들로부터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연설자가] 연설을 통해 판단자들[청중]을 그러한 마음 상태로 몰아넣고, 동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20] 동정을 받아야 일들이 그 동정을 얻을 만하지 않거나 그것을 얻지 않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판단자들은 동정을 느낄 수 없다.

10장. 질투

질투가 [자신과] 비슷한 자들이 앞에서 말한 좋은 것들을 누리는 명백한 행운에 대해 느끼는 일종의 고통이라면, 그것도 자신들에게 어떤 것이 생기게 할 목적이 아니라, [행운을 누리는] 저들 때문에 [괜히] 일어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어떤 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질투하는지도 [25] 분명하다. 자신들과 비슷하거나 비슷하게 보이는 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질투할 것이다. 여기서 비슷한 사람들이란 출생, 혈연, 나이, 마음상태, 평판, 재산의 측면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는 데 조금 모자란 사람들도 [질투한다](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하는 사람들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질투가 심하다). [30]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일로, 특히 지혜나 행복 면에서 특별히 존경 받고 있는 사람들도 [질투가 심하다]. 그리고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이 명예욕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질투가 심하다. 겉으로만 지혜로운 사람[겉뚱뚱이]들도 [질투가 심하다]. 이들은 지혜 면에서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관련하여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일에 관련하여 [질투가 심하다]. 그리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도 [질투가 심하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큰 것으로 [35] 생각되기 때문이다.

1388a 사람들이 질투하는 좋은 것들은 이미 말했다. | 사람들로 하여금 명성을 좋아하게 하고 명예를 다투게 하고 명성을 욕구하게 하는 업적들이나 재산들, 그리고 행운의 선물인 것들, 거의 이 모든 것들에 관련하여 질투가 있다. 특히나 사람들이 스스로 욕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 이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조금 우월하든 조금 뒤쳐지든 — [5] 관련하여 그렇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질투하는지도 분명하다. 조금 전에 말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시간, 장소, 나이, 평판 면에서 자신들에 근접해 있는 자들을 질투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동족은 또한 질투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연설술 1권(A)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과 명예를 다투는 자들을 [질투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된 자들과 명예를 [10] 다투기 때문이다. 아무도 만 년 전 사람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과는 명예를 다투지 않는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도 명예를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또는 남들이 보기에 자신들보다 훨씬 뒤쳐지거나 훨씬 우월한 자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일들에 관련하여 명예를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쟁자들이 라든가 [15] 연적(戀敵)들, 일반적으로 같은 것을 지향하는 자들과 명예를 다투므로, 필연적으로 그들은 그런 자들을 가장 많이 질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그리고 도공은 도공을 질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획득하거나 성공적으로 해내어 자신들에게 비난을 일으키는 자들을 [질투한다].(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고 [자신들과] 비슷하기도 하다). 분명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 부족으로 [20]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은 고통이 질투를 일으킨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마땅히 속했거나 자신들이 언젠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을 현재 가지고 있거나 획득한 자들을 [질투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질투하고, 같은 물건을 두고 많은 비용을 지출한 사람들은 조금 지출한 자들을 질투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간신히 얻었거나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얻은 자들을 질투한다. 그리고 [25] 그러한[질투가 심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로,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기뻐하는지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러한[질투하는] 마음 상태에 있을 때 고통을 느끼듯이,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에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청중들 자신들이 그러한[질투하는] 마음 상태로 물리고, 동정을 받거나 어떤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그런[질투를 받는] 자들이라면, 분명히 이들은 [연설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사람[청중]들로부터 [30] 동정을 얻지 못할 것이다.

11장. 경쟁심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어떠한 것들에,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경쟁심을 느끼는지는 다음으로부터 분명하다. 경쟁심은 존중되고,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본성상 자신과 비슷한 자들에게 현재 있다는 점에 대해, 남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있지 않아, 느끼는 일종의 [35] 고통이다(그렇기 때문에 경쟁심은 좋은 것이고 좋은 사람의 특징이지만, 질투는 나쁜 것이고 나쁜 사람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앞의 사람은 경쟁심을 통해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준비하지만, 뒤의 사람은 질투로 말미암아 이웃이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 갖지 않은, <그리고 1388b 고 자신들이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아무도 자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그릇이 큰 사람들은 경쟁심이 강하다). 그리고 존중되는 인물들이 가질 자격이 있는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도 [경쟁심이 강하다]. 그리고 부, [5] 친구가 많음, 여러 가지 공직 등이 그런 것들이다. 자신들이 좋아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추구한다. 그러한 좋은 것들은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그런 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경쟁심이 강하다]. 그리고 조상이나 동족이나 친지나 민족이나 국가가 존중되는 사람들도 그러한[존중되는] 것들과 관련하여 경쟁심이 강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들이 [10] 자신들에게 본래 속한 것들이고 자신들이 그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중되는 좋은 것들이 경쟁물이라면, 덕들이라든가 남들에게 유익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과 좋은 자들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보다는 부와 아름다움처럼, 이웃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것들도 그러한 것들이다.

[15] 어떤 사람들이 경쟁심의 대상이 되는지도 훤히 보인다.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들, 예를 들어 용기, 지혜, 공직이 그런 것들이고(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군들, 연설자들[정치인들],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되길 바라는 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인이나 [20] 친구가 되길 바라는 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는 자들, 또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 자신들이 경탄하는 자들도 [경쟁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시인이라든가 산문작가로부터 찬사

와 찬가를 받은 자들도 [경쟁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경시한다. 왜냐하면 경시는 경쟁심에 반대되고, 경시함은 경쟁심을 느낌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경쟁심을 느끼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경쟁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25] 경쟁심을 일으키는 좋은 것들에 반대되는 나쁜 것들 가진 사람들을 [이들이 가진] 그러한[나쁜] 것들 때문에 경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이 좋은 자들을, 존중되는 좋은 것들 없이 행운이 그들에게 있을 때, 자주 경시한다.

지금까지, 감정들이 어떤 것[토포스]들을 통해 [칭중들에게] 생겨나고 또한 해소되는지, 어떤 것[토포스]들로부터 [30] 감정들과 관련한 설득수단들이 생겨나는지 말했다.

12장. 젊은 층의 성격

다음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 마음상태, 나이, 운에 관련하여 어떠한지 그들의 성격을 훑어보자. 여기에서 감정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분노, 욕망 등을 말한다. 마음상태는 덕들과 악덕들을 말하는데, 각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것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35] 실행하는지를 포함하여 그것들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했다. 나이는 청년, 장년, 노년이다. 그리고 운은 | 좋은 태생, 부, 온갖 능력 1389a 및 이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행운과 불운을 말한다.

젊은이들은 성격 면에서 욕망에 빠지기 쉽고,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려든다. 신체에 관련된 욕망 중에서는 성욕에 [5] 가장 이끌리기 쉽고,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욕망과 관련하여 변덕스럽고 쉽게 물리고, 욕망하다가도 곧바로 멈춘다(왜냐하면 그들의 의욕은, 환자의 갈증과 허기 처럼, 강렬하지만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분노에 이끌리기 쉽다. [10] 그리고 그들은 걱정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들은 무시당하면 명예욕 때문에 참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분개한다. 그리고 그들은 명예를 좋아하면서도, 승리를 더 좋아한다(젊은이들은 우월성을 욕망하는데, 승리는 일종의 우월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더 좋아한다(피타코스가 암피아라오스에 대한 피타고스의 경구에 있듯, 그들은 결핍을 경험한 적이 없기 [15]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이 [연령층들 중] 가장

적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사악한 것들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냉소적이지 않고 순진하다. 그리고 아직 많이 속지 않았기 때문에 잘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에 차 있다. 술에 취한 자들처럼, 젊은이들은 본성상 피가 뜨겁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또한 [20] 그들은 많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희망에 산다. 왜냐하면 희망은 미래에 관련된 것이고 기억은 과거에 관련된 것인데,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는 길고 과거는 짧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 초기에는 기억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쉽게 [25] 속는다(쉽게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더 용감하다(기개가 있고 희망에 차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 중 앞의 것[성향]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뒤의 것은 용감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아무도 분노한 상태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희망함은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수치심에 민감하다(아직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관습에 따라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0] 그들은 뜻하는 바가 크다(아직 인생에 의해 비굴함을 당한 적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큰일들을 해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뜻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뜻은 희망에 찬 사람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익이 되는 일들보다는 아름다운 일들을 선택한다. 계산보다는 자연적인 성향에 의해 살고, 계산은 이익을 노리지만 [35] 덕은 아름다움을 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친구를 사랑하고 | 동료를 사랑한다. 함께 살아가는 일에 기뻐하고, 아직 어떤 것도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친구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킬론의 격언과 반대로 매사에 [정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서 잘못한다(그들은 매사를 지나치게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나치게 사랑하고 [5] 지나치게 미워하고 다른 모든 일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안다고 확신하며 이를 주장한다(이런 까닭에 그들 모든 일들을 지나치게 행한다). 그리고 그들은 악의가 아니라 오만함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선량하고 실제보다 더 낫다는 생각으로 남을 쉽게 동정한다(자신들의 무구(無垢)함으로써 이웃들을 측정하고, [10] 그래서 이웃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웃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치를 좋아한다. 재치는 교화된 오만이기 때문이다.

13장. 노년층의 성격

청년층의 성격은 그렇다. 그리고 장년기가 한참 지났거나 갓 지난 노인들은 방금 말한 것들에 반대되는 성격들로 [15] 대체적으로 이뤄져 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살았고, 더 많이 속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서, 그리고 보다 많은 인간사가 나쁜 결말로 끝나기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덜 경탄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하지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지 않고, 망설이면서 항상 ‘아마도’, ‘어쩌면’이란 말을 덧붙이고, 만사 [20] 그런 식으로 말하며 어느 것 하나 확고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냉소적[비관적]이다. 왜냐하면 냉소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더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경험이 있어 잘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비아스의 조언에 따라 어느 날 미워할 것처럼 사랑하고 [25] 어느 날 사랑할 것처럼 미워한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에 의해 위축되어 그릇이 작다. 큰 일이나 비범한 일은 욕망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욕망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식하다. 왜냐하면 재산은 그런 필요한 것들 중 한 가지이고, 이와 동시에 그들은 [재산을] 얻기란 어렵고 잃기란 쉽다는 것을 또한 경험으로부터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겁이 많고, [30] 모든 것들을 지레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다. 그들의 기질은 젊은이들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었고, 젊은이들은 뜨겁다. 그래서 노령은 겁으로 길을 터줬다. 그리고 두려움은 일종의 냉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생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인생 말기에 더욱 더 그러한 데, 이는 그들의 욕망은 가버린 것에 대한 것이고, 그들은 특히 자신들에게 [35] 부족한 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이기적이다. 이것도 일종의 그릇이 작음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적이기에 필요 이상으로 이익을 위해 살지, 아름다움을 위해 살지는 않는다. 이익은 | 자신에게 좋은 것이지만, 아름다움은 단적으로[절대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기보다는 부끄러움을 더 모른다. 그들은 아름다움과 이익을 같은 정도로 신경 쓰지 않아 [남의] 평판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이 있어 희망을 갖지 않는다([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대부분은 [5] 나쁘기 때문이다. 적어도, 많은 일들이 더 나쁜 결과로 끝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겁이 많아 그렇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보다는

1390a

기억[추억]을 먹고 산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은 짧지만 지나간 세월은 길고, 희망은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기억은 지나간 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유로 또한 그들은 수다스럽다. [10] 그들은 일어난 일들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한다. 회상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불붙기 쉽지만 미약하고, 그들의 욕망들 중 어떤 것들은 사라졌고 어떤 것들은 미약하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욕망에 빠지지도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고, 이득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배의 사람들은 절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15] 욕망들은 느슨해졌고 그들은 이득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격에 따라 살기보다는 계산에 따라 산다. 계산은 이익에 관련되지만 성격은 덕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오만 때문이 아니라 악의 때문이다. 노인들도 동정심을 발휘하기 쉽지만, 그 이유는 젊은이들의 경우와 다르다. 젊은이들은 [20] 인간애[박애] 때문에 그렇지만, 노인들은 허약함 때문에 그렇다. 이들은 모든 것[화]들을 겪는 일이 자신들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동정심을 발휘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定義)였다. 그래서 그들은 잘 투덜대고, 재치가 없고 웃음도 좋아하지 않는다. 잘 투덜댄은 웃음을 좋아함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성격은 그러하다. [25]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격에 맞게 행해지는 연설들을,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행해지는 연설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어떻게 연설자가 말을 써서 그 자신이 그리고 그의 연설이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지 분명하다.

14장. 장년층의 성격

분명히, 장년기의 사람들은 양쪽의 과도함을 제거함으로써 성격 면에서 그들의 중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하지도 [30] 않고(무모함이 그러한 것이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 극단에 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모든 사람을 믿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불신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실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1390b 아름다움이나 이익을 좇아서만 살지 않고, | 양쪽을 좇으며 산다. 그리고 인색하게 살지도 낭비하며 살지도 않고, 이를 조화하는 방식으로 산다. 열정과 욕망에 관련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들의 절제는 용기를 동반하고, 용기는 절제를 동반한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경우 그것들은 따로 논다. [5] 젊은이들은 용감하

연설술 1권(A)

나 무절제하고, 늙은이들은 절제가 있으나 비겁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그들은 유용한 것들 중 청년과 노년이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을 견비하고 있고, 양쪽에 과도하게 있거나 부족한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갖고 있다. 그리고 신체는 [10] 30세부터 35세까지가 전성기이고, 정신은 49세쯤이 전성기이다.

청년, 노년, 장년에 관하여, 각각의 연령층에 속한 성격이 어떠한지는 이쯤 말해 두자.

15장. 귀족층의 성격

계속해서, 행운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15] 일정한 성격이 생겨나게 하는 것들을 바로 말해보자. 좋은 가문의 성격은 그런 가문을 가진 사람의 명예욕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것이 주어질 때, 그것에 다른 [좋은] 것들을 쌓기 마련이고, 좋은 가문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명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비슷한 사람들조차 [20] 알보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같은 것도 [시간적으로] 가까이에서 생겨나는 것보다 멀리서 생겨나는 것이 더 명예롭고 자랑하기 쉽기 때문이다. 가문이 좋다는 것은 그 가문의 탁월성을 보아 그렇다는 것이고, 혈통이 바르다는 것은 [좋은] 본성에서 이탈하지 않은 점을 보아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가문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부수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수가 무가치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혈통에서도 [25] 농토에서 자라는 것들에서처럼 작황 같은 것이 있어서, 때로는 가계가 [상황이] 좋아서 일정 기간에 걸쳐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나빠지기 때문이다. 알키비아데스의 자식들이나 디오뉴시오스 1세의 자식들처럼, 질 좋은 혈통이 오히려 광기 있는 성격으로 이탈하기도 하고, 키몬과 페리클레스와 [30] 소크라테스의 자식들처럼, 견실한 혈통이 어리석음과 둔함으로[우둔함으로] 바뀌기도 한다.

16장. 부유층의 성격

부에 따르는 성격들을 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다. 부유한 사람들은

1391a 부의 소유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아 오만하고 거만하다(그들의 마음 상태는 좋은 것들을 죄다 가진 사람과 같기 | 때문이다. 그리고 부는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과도 같고,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사치스럽고, 으스스하다. 그들은 사치와 행운의 과시 때문에 사치스럽고, 다들 자신들에 의해 사랑받고 경탄 받는 것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5] 으스스대고 저속하게 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은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들이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도 일리가 있다(부를 소유한 자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모니테스도 지혜로운 자들과 부유한 자들에 관련하여, 히에론의 아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은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나은지 [10] 물었을 때, “부자”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부잣집 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배할 자격을 주는 것들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로부터 나오는 성격은 행운을 얻은 바보의 성격이다. 그리고 신흥부자와 [15] 오랜 부자의 성격은 신흥부자가 모든 악들을 더 많이 더 나쁜 형태로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난다(신흥부자라는 것 부와 관련한 교양 부족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부정한 일들, 예를 들어 폭행과 간통은 악의적이지 않고, 더러는 오만해서, 더러는 억제[크기]하지 못해 일어난다.

17장. 권력층의 성격

[20] 권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그 성격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권력은 더러는 부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더러는 그보다 더 나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은 성격 면에서 부자들보다 더 명예욕이 있고 더 남자답다[씩씩하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실행할 재원을 가진 모든 행위들을 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열성적이다. [25] 권력에 관련된 일들을 살필 수밖에 없어서 주의를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무게 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위엄 있다. 그들의 [높은] 지위가 그들을 더 위엄 있게 만들어서 그들은 적정선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위엄은 유연하고 우아한 무게이다. 그리고 부정한 일을 저지를 때 소규모로 저지르지 않고 대규모로 저지른다.

연설술 1권(A)

[30] 행운의 부분들은 방금 말한 성격들에 기여한다(최대인 것으로 생각되는 행운은 그러한 것[성격]들로 뺀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행운은 좋은 자식을 두는 일과 신체에 좋은 것들과 관련하여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

1391b 그래서 사람들은 행운으로 말미암아 | 더 거만하고 더 생각이 없지만, 행운에 아주 좋은 한 가지 성격이 따르는데, 그것은 운 좋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믿음에 생겨,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 신들을 사랑하고, 신적인 것에 특별한 태도로 대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나이와 운에 관련된 성격들에 관하여 말했다. [5] 반대되는 성격들은, 예를 들어 가난한 자, 불운한 자, 힘없는 자의 성격은 말한 것들에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분명하다.

18장. 연설의 논증적 요소에 대한 서론

[청중을] 설득하는 연설들은 [청중의] 판단을 앞에 두고 사용된다(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연설할 필요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한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하면서, 조언하거나 설득하는 [10] 사람들이 하듯이, 그에게 [어떤 것을] 권고하거나 만류할 때에도, 판단이 있다(한 사람도 [여러 사람] 못지않게 판단자이기 때문이다. 설득되어야 할 사람, 이 사람이 단적으로 말해 판단자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소송 상대들을 상대로 연설을 할 때에도, 제시된 것[주제]에 반대되는 논증을 펼칠 때에도 마찬가지로 판단[관정]이 있다([뒤의 경우처럼] 반대되는 논증들을 반박할 때에도 말을 사용해야 한다. 그는 그 논증들을 소송 상대처럼 대하여 논증을 펼친다). [15] 그리고 전시 연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있다(바로 관중을 판단자처럼 대하여 연설이 구성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판단자는 시민적인 논쟁들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판단하는 사람만이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다툼이 벌어지는 것[사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고, [의회에서는] 심의되고 있는 것[정책]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체제들의 성격에 관해서는 앞에서 [20] 조언연설을 다룰 때 말했다. 그 결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고유한] 것[토포스]들을 통해 [청중의] 성격에 맞춘 연설을 해야 하는지가 규정되었다.

연설의 각 종류마다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모든 종류의 연설들에 관련하여

조언하는 사람들과 전시하는 사람들과 소송을 벌이는 사람들이 설득 자료를 가져 오는 의견들과 전제들이 [25] 수집되었고, 더 나아가 [청중의] 성격에 맞게 연설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수단]들에 대해서도 규정했으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든 종류의 연설들에] 공통된 점들을 논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연설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관한 점[전제]을 연설에서 [한 종류에 고유한 전제들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는 점[미래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점[과거 사실을] 보여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30] 더 나아가, 모든 연설들에 공통된 [세 번째] 점은 ‘크기’에 관한 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조언할 때든,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든, 고소하거나 변론할 때든 ‘축소’와 ‘확대’[부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된] 점들을 1392a 규정한 후에, 엔튀메마[연설술의 연역추론]들에 관하여 그리고 본보기[연설술의 귀납추론]들에 관하여 할 수 있는 한 일반적으로 말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남은 것들을 보태어 애초에 내놓았던 목적을 이루도록 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공통된 점들 중 ‘확대’[에 관한 점]는 전시연설에, [5] ‘과거’[에 관한 점]는 재판연설에, 그리고 ‘가능한 것’과 ‘미래’[에 관한 점]는 조언연설에 가장 고유하다.

19장. 모든 연설에 공통된 점들

먼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관한 점]을 말해 보자. 반대되는 것이 있거나 생겨날 수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것도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10]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면, 그는 병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것들에는, 이것들이 반대되는 것들인 한, [대체적으로] 같은 가능성이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슷한 것이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면, 그것과 비슷한 것도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이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면, 더 쉬운 것도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것이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면, 일반적으로[평범하게] 생겨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집이 [15] 아름답다는 것은 집이 있다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이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면, 끝도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들은 어떤 것도 생겨나지도 않고 생겨나기 시작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한 변과] 같은 단위로

켈 수 있음은 생겨나기 시작할 수도 없고 생겨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끝이 있는 곳에는, 처음도 [있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처음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재나 생성에서 [20] 나중인 것이 생겨날 수 있다면, 먼저인 것도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성에서 나중인] 어른이 생겨날 수 있다면, [생성에서 먼저인] 아이도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아이가 먼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재에서 나중인] 아이가 있을 수 있다면, [존재에서 먼저인] 어른도 [있는 것이 가능하다].(어른도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사랑이나 욕망의 대상인 것들도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아무도 불가능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욕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문들과 기술들의 대상인 것들, [25] 이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다. 그리고 생성의 원리[출발점]가 우리가 강제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것들 안에 든 것들도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것보다] 우월하거나 [그것을] 지배하거나 [그것과] 친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부분들이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면, 전체도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 전체가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면, 대체적으로 부분도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신발창과 앞부리와 [30] 뒷부분이 생겨날[만들어질] 수 있다면, 신발도 생겨날[만들어질] 수 있고, 신발이 생겨날[만들어질] 수 있다면, 신발창과 앞부리와 뒷부분도 생겨날[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 유(類) 전체가 생겨날

1392b 수 있는 것들에 속하면 종(種)도 그렇고, 종이 생겨날 수 있는 것들에 속하면 유도 그렇다. 예를 들어, 배가 생겨날[만들어질] 수 있다면 삼단노선도 그렇고, 삼단노선이 생겨날[만들어질] 수 있다면, 배도 그렇다. 자연적으로 상관되어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하나도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두 배가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절반도 그렇고, [5] 절반이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두 배도 그렇다. 그리고 기술과 준비 없이 생겨날 수 있다면, 기술과 주의를 통해서는 [생겨나는 것이] 더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가톤의 말도 나왔다.

정말 어떤 일들은 기술로써 행해야 하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필연과 우연에 의해 생긴다.

[10] 그리고 [도덕적으로] 열등한 자, [신체적으로] 약한 자, 덜 현명한 자에게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는 [있거나 생겨나는 것이] 더 가능하다. 이소크라테스가 에우튀노스가 [남한테] 배운 것을 자신이 스스로 알아내지

못한다면 이상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것이다.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들에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15]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또는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점들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본성상 덜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면, 더 그런 것도 일어났을 수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에 앞선 것도 일어났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면, 그는 그것을 언젠가 배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능력과 의욕이 [완벽하게]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했다. 모든 사람들은 [20] 능력과 더불어 의지가 있을 때, 실천하기 때문이다. [내부의] 아무것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누군가가 어떤 것을 의욕하고 외부의 어떤 것도 이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을 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할 능력이 있었고 분노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할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욕망했다면 [그는 그것을 했다]. 왜냐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욕구한 것들을 그럴 능력이 있다면, 행하기 때문이다. 사악한 사람들은 억제력이 없어서 그렇고, 좋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5] 어떤 일이 일어나려 했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하려 했다면 [그 일은 일어났고, 그는 그것을 했다]. 어떤 일을 하려 했던 사람은 또한 그것을 했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성상 어떤 것에 앞선 것이나 어떤 것을 위한 것[수단]이 일어났을 때 [뒤의 것이나 목적도 일어났다]. 예를 들어, 번개가 쳤다면 천둥소리도 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시도했다면 그는 [그 일을] 행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나중에 일어나거나 어떤 것이 위하는 것[목적]이 일어났다면, 앞선 것과 그것을 위한 것[수단]도 [30] 일어났다. 예를 들어, 천둥소리가 났다면 번개도 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다면 그는 [그 일을] 시도했다. 이 모든 것들 중 어떤 것들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대체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일어나지 않음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1393a | 그리고 있게 될 것[미래]에 대해서도 [과거의 경우와] 같은 것[원리]들로부터 분명하다. 그에 대한 능력과 의욕이 있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욕망이나 분노나 계산이 능력과 더불어 있는 것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려던 참이거나 하려고 하게 될 때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체로, 있게 되지 않을 것들보다는 [5] 있게 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앞서 일어나는 것들이 앞서 일어났다면 [뒤의 것도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먹구름이 온다면, 비가 내릴 개연성이 많다. 그리고 어떤 것[목적]을 위한 것[수단]이 일어났다면,

그 어떤 것[목적]도 일어날 개연성이 많다. 예를 들어, 토대가 놓였다면, 집도 [지어질 개연성이 많다].

사물들의 크기와 작음, [10] 더 크기와 더 작음, 일반적으로 큰 것들과 작은 것들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조연연설을 다룰 때, 좋은 것들의 크기, 그리고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설들의 각 종류 앞에 놓인 목적은 좋은 것이므로, 즉, 이로운 것과 아름다운 것과 [15] 옳은 것이므로, 분명히 모든 사람[연설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안을] 확대[부각]할 자료를 얻어야 한다. 이것들과 따로 일반적으로 크기[경중]에 관해, 그리고 우월성에 관해 더 탐구하는 일은 빈말[공통]이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면에서 개별적인 것[사항]들이 보편적인 것[이론]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20]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그리고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과거 사실], 그리고 있게 될지 있게 되지 않을지[미래 사실], 더 나아가 사물들의 크기와 작음에 대해서는 이쯤 말해 두자.

20장. 본보기

고유한 설득수단들에 대해 말했으므로, 모든 것[종류의 연설]들에 공통된 입증수단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남았다. 공통된 입증수단의 유(類)는 두 가지, [25] 즉 본보기[연설술적 귀납]와 엔튀메마[연설술적 연역]이다. 격언은 사실상 엔튀메마의 일부이다. 그러면 먼저, 본보기에 대해 말해보자. 왜냐하면 본보기는 귀납과 비슷하고, 귀납은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본보기에는 두 종(種)이 있다. 다시 말해, 본보기의 한 종은 앞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설자]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30] 것이다. 그리고 뒤의 것에서 하나는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소포스와 뮈비아의 이야기들 같은 우화들이다.

[앞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음처럼 말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페르시아왕의 침공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이집트가 점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레이오스는 | 이집트를 손에 넣기 전에는 1393b [그리스로] 건너오지 않고 그곳을 손에 넣은 뒤 건너왔으며, 크세르크세스도 그곳을

손에 넣기 전에는 [그리스를] 공격하지 않고 그곳을 손에 넣은 뒤 건너왔으니, 만일 그[페르시아의 현재 왕]가 그곳을 손에 넣는다면, [그리스로] 건너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비유는 어떤 사람이 다음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소크라테스적인 화법들이다. [5]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기할 능력이 아니라 추첨으로 운동선수들로 뽑는 경우, 또는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추첨으로 뽑힌 아무나 키잡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선원들 중에서 아무나 키잡이어야 할 사람으로 뽑는 경우와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화는 스테시코로스가 팔라리스에 대해, 그리고 아이소포스가 민중지도자를 위해 지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10] 히메라 사람들이 팔라리스를 전권을 가진 장군으로 뽑고 친위대를 제공하려고 했을 때, 다른 점들을 이야기 한 뒤 스테시코로스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우화를 말했다. 「어떤 말이 초원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시슴 한 마리가 들어와 목초지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러자 그 말은 시슴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에게 [15] 자신과 함께 시슴에게 복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말이 재갈을 물고 그가 작은 창들을 지니고 말 등에 올라탄다는 조건으로 수긍했다. 말이 동의하여 그가 올라탔을 때, 말은 복수하는 대신에 스스로 인간의 노예가 되었다.’ 스테시코로스가 이어 말하길, “그러니 여러분들도 적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에 말과 [20] 같은 꼴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전권을 가진 장군을 뽑음으로써 이미 재갈을 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에게 친위대를 제공하고 [그가 여러분의] 등에 올라타길 허락하는 순간 여러분은 팔라리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아이소포스는 어떤 민중지도자가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대중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우가 강을 건너다 독의 갈라진 틈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25]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한참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여우에게 많은 개 진드기들이 달라붙었다. 떠돌던 고슴도치가 여우를 보고 동정을 느끼고서 개 진드기들을 여우에게서 떼어내 줄까 묻자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고 물었을 때, 여우는 말했다. “이 놈들은 이미 나로 배가 불러서 이제 피를 조금만 빨아 먹는데, 네가 이 놈들을 [30] 떼어내면, 다른 배고픈 놈들이 와서 남은 내 피를 빨아 마실 거니까.” “사모스 인들이여, 여러분들의 경우에서도 이 사람은 더는 어떠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그는 [이미] 부자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죽이면, 다른 | 가난한 자들이 와서, 여러분들로부터 1394a 남은 것[재산]들을 훔쳐 써버릴 것입니다.”」

연설술 1권(A)

우화들은 민회연설[조언연설]에 적합하다. 그리고 유사한 과거 사건들은 찾아내기 어렵지만, 우화들은 [만들어진 것들]을 찾아내기 쉽다는 이점이 우화들에 있다. 왜냐하면 우화들은, 유사성을 볼 수 있을 경우,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5]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화들에 의한 것[사례]들은 마련하기가 쉽고, 사건들에 의한 것[사례]들은 조언에 더 유용하다. 미래의 일들은 대체적으로 과거의 일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엔튀메마[연설술적 연역]들을 갖지 않은 사람은 본보기[연설술적 귀납]들을 [10] 증명으로서 사용해야 한다([연설술의] 설득은 이것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진 사람은 본보기들을 엔튀메마들에 대한 부언(附言)으로 처리하면서 증언으로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보기들은 앞에 놓일 때 귀납과 비슷하지만 귀납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설술에 적합하지 않고, 본보기들은 부언일 때에는 증언과 비슷하고 증인은 모든 곳에서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들이 앞에 놓일 때에는 [15] 많은 것들을 말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들이 부언일 때에는 하나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쓸모 있는 증인은 한 사람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보기들의 종(種)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말했다.

21장. 격언

격언의 사용에 관하여 말하자면, 격언이 무엇인지 말한다면, [20] 어떠한 것[주제]들에 관련하여, 언제, 어떤 사람들에 의해 연설에서 격언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지 아주 분명해질 것이다. 격언은 언명이지만, 개별적인 것[개별자]들에 대한 언명 — 예를 들어, 이피크라테스가 어떤 인물인지와 같은 것 — 이 아니라, 보편적인 언명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것 — 예를 들어, 고품이 굵음에 반대된다는 것 — 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과 [25] 행위에 관련하여 선택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엔튀메마[연설술적 연역]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추론이므로, 추론[의 과정]이 제거된 엔튀메마들의 결론들과 전제들[중 하나]이 격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결코

[30] 자식들이 너무 영리하게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격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덧붙여지면, 그 전체는 엔튀메마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유가 덧붙여지면.]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태만하다는 비난 말고도,
시민들로부터 악의적인 질투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394b |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 즉

모든 면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

와 다음과 같은 것, 즉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 격언이다. [5] 이것이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행(行)과 합해지면 엔튀메마가 된다.

사람은 금전의 노예이든지 운명의 노예이니까.

만일 격언이 말한 대로라면, 필연적으로 격언의 종(種)은 네 가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1) 부언(附言)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있거나, 아니면 (2) 부언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념에 어긋나거나 의견이 분분한 내용을 담은 격언들은 [10]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념에 어긋나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 격언들은 부언이 없다. 뒤의 격언들 중, 필연적으로, (2a) 어떤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부언이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은 부언이 필요하지 않다.]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사람에게 건강이 최고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2b) 어떤 것들은 말해짐과 동시에 경청하는 [15] 사람들에게 명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은 부언이 필요하지 않다.]

항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연설술 1권(A)

그리고 (1a) 부언이 있는 격언들 중 어떤 것들은 엔튀메마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그렇다.]

분별 있는 [사람은] 누구든 ... 해서는 안 된다.

[20] 그리고 (1b) 다른 어떤 것들은 엔튀메마의 성격을 띠지만, 엔튀메마의 일부는 아니다. 바로 이런 격언들이 가장 인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안에 말해진 내용의 이유가 들어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그렇다.]

죽는 자가 죽지 않는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

‘[죽지 않는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격언이지만, 그것에 [25] 부가된 ‘죽는 자가’는 이유이다. 다음의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죽는 자는 죽는 것들을 생각해야지, 죽는 자가 죽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분명히, 앞에서 말한 것들로부터 격언의 종(種)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각 종이 어떠한 [유형의] 것[진술]에 관련하여 적합한지 분명하다. 의견이 분분하거나 통념에 어긋나는 사안들에 관련해서는 부언(附言)이 없어서는 안 되고, 부언을 앞에다 놓고 [30] 결론을 격언처럼 사용하거나(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로서는, [자식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도 게을러서도 안 되므로, 나는 [자식이]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처럼) 아니면 이것을 먼저 말하고 앞의 것들을 덧붙여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통념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불분명한 사안들에 관련해서는 그 이유를 되도록 간결하게 덧붙이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한 경우들에서는 [35] 라케다이몬[스파르타] 식의 경구(警句)와 수수께끼 형태의 말들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 스테시코로스가 로크리스인들 사이에
1395a 서 말했던 것, 즉 ‘오만스레 굴지 말라. 매미들이 [폐허가 된] 땅으로부터 노래하지 않도록.’을 씌먹는 경우가 그렇다.

격언 사용은 늙은 연령층에 적합하고, 자신이 경험이 있는 것[문제]들에 관련하여 적합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이 격언을 사용하는 것은 [5] 우화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치 않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것들에 관련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육 부족한 탓이다. 이를 충분히 확인해 주는 점이 있다. 즉, 촌사람들은 특히 격언을 찾아내길 좋아하고 그것을 쉽게[경박하게] 내뱉는다.

보편적인 것이 아닌 것인데도 그것을 [격언을 통해]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평과 격분을 표출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 그럴 때에도 처음에나 증명을 마친 뒤에 그렇게 [10]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흔한 격언들도 유용하다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라도 하듯, 옳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신들에게 희생제를 치르지 않은 자들을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도록 격려하는 사람에게는 [상투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격언을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

길조는 오직 하나뿐, 조국을 지키는 일이다.

[15] 그리고 수적으로 열세인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도록 격려하는 사람에게는 [상투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격언을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

전쟁의 신[아레스]은 편들지 않는다.

그리고 적들의 자식들을 아무 죄도 없는데도 살해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에게는 [상투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격언을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

아비를 살해하고도 자식들을 살려두는 자는 어리석다.

더 나아가, 어떤 속담들은, 예를 들어 ‘[귀찮은] 아티카 이웃사람’과 같은 속담은 [20] 격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림으로써 연설자] 자신의 성격이 더 좋게 보이게 되거나 격언이 감정이 섞인 표현으로 보이게 될 때에는, 대중화된 말들에 반대되는 격언들도 말해야 한다(여기에서 ‘대중화된 말들’이란 “너 자신을 알라”와 “아무것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 감정이 섞인 격언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분노하여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25] 적어도 이 높은, 제 자신을 알았더라면, 결코 자신이 장군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미워하게 될 것처럼 사랑하지 말고, 차라리 사랑하게 될 것처럼 미워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연설자] 자신의 성격이 더 좋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격언의] 표현방식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 이유를 덧붙여 말해야 한다. 즉,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30]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런 식은 배신자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 이유를 덧붙여 말해야 한다.] 즉, “그런 말[격언]은

내 맘에 들지 않는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언제까지나 사랑하게 될 것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도 [내 맘에 들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만큼은 지나치게 미워해야 하기 때문이다.”

- 1395b | 그리고 격언들은 저속한 청중으로 말미암아 연설에 한 가지 큰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청중은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말하면서 자신들이 특정 사례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들을 건드릴 때 기뻐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어떻게 격언들을 물색해야하는지는 다음의 것으로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5] 즉, 격언은, 앞에서 말했듯이, 보편적인 언명(言明)이고, 청중은 자신들이 특정 사례에 대해 이미 생각해 두고 있는 것을 [연설자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기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마침 나쁜 이웃들이나 자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웃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거나 자식을 낳는 것보다 바보스런 짓은 없다는 [연설자의] 말을 수용하려 들 것이다. [10] 그래서 [연설자는] 청중이 [어떻게] 어떤 종류의 생각들을 이미 품고 있는지를 짐작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생각들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것이 격언 사용의 한 가지 이점이다. 그리고 다른 이점이 더 크다. 그것은 격언이 연설들을 성격에 관련된 것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도덕적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있는 연설들이 성격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모든 격언들은 그러한 것을 수행하는데, 이는 [15] 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의도를 일반적으로 피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용한 격언들은 또한 그것들을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 유용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격언에 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이점을 갖는지는 이 정도로 [20] 말해 두자.

22장. 엔튀메마

엔튀메마[연설술적 추론]들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탐구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으로 그것들의 토포스[지침]들을 [따로] 말해 보자. 왜냐하면 이것들 각각은 종(種)이 다르기 때문이다. 엔튀메마가 추론이라는 점, 그것이 어떻게 추론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변증술적 추론들과 다른지는 [25] 앞에서 말했다. [연설술에서] 결론은 멀리서 끌어와서도 안 되고, [추론의] 모든 단계들을 포함해서도 안 된다. 앞의 경우에는 [추론이] 길어서 불분명하고, 뒤의 경우는 짧은

것들을 말해서 수다스럽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시인들이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군중 앞에서 더 멋지게 말한다고 말하듯,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육 받은
 사람들보다 군중 앞에서 더 설득력을 갖는 [30] 원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교육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이고도 일반적인 것들을 말하지만,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한] 것들과 가까운 것[사례]들을 바탕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설자는] 모든 의견들을 바탕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예컨대 판단을 내리는
 자[청취]들이나 이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정해진 의견들을 | 바탕으로
 1396a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제시된 의견]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필연적인 것[전제]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대체로 참인 것들로부터도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먼저, [연설자는] 자신이 말하거나 —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추론으로든
 다른 성격의 추론으로든 — [5] 추론해야 하는 것[주제]에 관련하여 그것에 속한
 사항들을 전부든 일부든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로부터 결론을 끌어낼 전제를 전혀 가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아테네인들의
 군사력이 어떤 것인지 — 해군력인지 육군력인지 둘 다인지 —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세입이 어떻게 우방국과 적국이 어떤 나라인지, [10] 과거에 어떤
 전쟁들을 어떻게 치렀는지 등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조언할 수 있겠는가? 또는 살라미스 해전이나 마라톤
 전투를 헤라클레스의 자녀들이 행한 일들이나 이와 같은 종류의 다른 일들을 모른
 다면, 어떻게 [아테네인들을] 칭찬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연설자]들은
 [15] [칭찬 받을 사람들에] 속하거나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아름다운 일을 바탕으로
 칭찬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연설자들은 그에 반대되는 일들을 바탕
 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아테네인들]에게 속하는지 또는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
 는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그들이 그리스인들을 예속시켰다고, 그들과 함께
 야만족에 맞서 싸워 수훈을 세운 아이기나인들과 포티다이아인들을 [20] 노예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 다른 어떤 그러한 잘못이 그들에게 속한다면 — 그밖의
 다른 그러한 일들로, 그들을 비난한다. 같은 방식으로, 고소하는 사람들과 변호하는
 사람들도 주어진 사실들을 토대로 살펴본 후 고소하고 변호한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살피는 대상이 아테네인들이든 라케다이몬인들이든,
 사람이든 신이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 [25] 예컨대, 아킬레우스에게 조언할 때,

그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그를 고소하거나 변호할 때, 우리는 그에게 속하는 점들이나 그에게 속한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점들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면이나 추한 면이 있다면 칭찬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하고, 옳은 면이나 부정한 면이 있다면 고소하거나 변호하고, [30] 이로운 점이나 해로운 점이 있다면 조언하도록.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정의에 관련하여, 그것이 좋은 것인지 좋은 것이 아닌지는 정의와 좋은 것의 속성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연설자들은 — 상대적으로 더 엄밀하게 추론하든 더 느슨하게 추론하든 —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 보이므로(그들은 모든 것들로부터 [전제들을] 얻지 않고, 각각의 주제에 관련된 사항들로부터 [전제들을] 얻는다), 그리고 연설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일은 보다시피 불가능하므로, 《변증론 *Topica*》에서 말했듯이, 분명히 먼저 각각의 주제에 가능한 점들과 그것에 가장 적절한 점들에 관한 선별된 것[전제들을] [5]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무한한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연설에 관련된 것들에 속하는 점들에 주목하면서, 그리고 되도록 많이 주제에 가장 가까운 점들을 도려내면서, 앞의 방식과 같이 [전제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 주제에] 속하는[타당한] 점들을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증명이 쉽고, [10] 그것들이 주제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더 적합하고 덜 공통적인 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통적인 점들’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반신(半神)이라는 점’ 때문에, ‘일리온으로 출정했다는 점’ 때문에 아킬레우스를 칭찬한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디오메데스를 칭찬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아킬레우스를 칭찬한다. 고유한 점들은 아킬레우스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15] 전혀 속하지 않는 점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트로이아인들 중 가장 뛰어난 헥토르와 [그리스군의] 상륙을 저지했던 불사신 퀴크노스를 살해했다는 점’, 그리고 ‘최연소자로서 [헬레네가 남편으로 선택한 자를 지킨다는] 서약을 하지 않고 출정했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증거를] 선택하는 그러한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은 [고유한] 토포스[지침]에 의한 방식이다. [20] 엔튀메마[연설술적 추론]들의 요소들을 말해 보자. 여기에서 엔튀메마의 요소와 [모든 종류의 연설에 공통된] 토포스는 같은 것이다. 먼저, 가장 먼저 말해야 할 점들을 말해 보자. 엔튀메마에는 두 종(種)이 있다. 하나는 어떤 것이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를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변증술에서의 반박과 추론처럼 [25] 다르다. 증명적 엔튀메마는 [상대에 의해] 동의된 것[전제]들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고, 반박적 엔튀메마는 [상대에 의해] 동의되지 않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연설의] 각 종류에 관하여 유용하고 필요하기도 한 토포스[지침]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종류에 [30] 관련된 전제들이 수집되었고, 그래서 좋은 것이나 나쁜 것, 또는 아름다운 것이나 추한 것, 또는 옳은 것이나 부정한 것에 대한 엔튀메마가 나오는 [고유한] 토포스들, 그리고 성격들, 감정들, 상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온 토포스들이 이전에 수집되어 지금 1397a 우리들 수중에 있다. | 더 나아가, 모든 것[연설]들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토포스들을] 말해 보자. 그리고 반박적 엔튀메마의 토포스들과 증명적 엔튀메마의 토포스들을, 그리고 사이비 엔튀메마의(이것은 추론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토포스들을 추가로 지적하며 말해 보자. 이 점들을 밝히고 나서, [5] [엔튀메마처럼 보이는] 해결과 항의[이의제기]에 관하여, 어디로부터 그것들을 얻어서 엔튀메마들에 다 맞대응시켜야 하는지, 규정해 보자.

23장. 공통된 토포스들

[토포스 1. 반대되는 것들에 입각한 지침] 증명적 엔튀메마[연설술적 추론]들의 한 가지 토포스[지침]는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 [어떤 술어에] 반대되는 것[술어]이 [어떤 주어에] 반대되는 것[주어]에 들어있는지[타당한지] 살펴보고, 들어있지 않으면 반박하고, 들어있으면 확증해야 한다. [10] 예를 들어, 절제 있음은 좋은[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무절제한은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메세니아코스》[메세니아 연설]에서처럼, “전쟁은 현재 악(惡)들의 원인이라면, 이를 평화의 도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또는]

왜냐하면 제 의지에 반하여 나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에 빠지는 것이 옳지 않다면,
[15] 어떤 사람이 강요받아 좋은 일을 했을 때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연설술 1권(A)

그러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믿는다면,
당신은 반대로, 사람들이 진실을 잘 믿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고도 생각해야 한다.

[20] [토포스 2. 비슷한 굴절어들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비슷한 굴절어들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 [같은 어근에 속하는] 굴절어들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주어에 속성으로서] 들어있거나[타당하거나] 들어있지[타당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한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처럼. 왜냐하면 [다 좋을 경우, 같은 어근의] ‘정당하게’는 바로 ‘ 좋게’를 뜻할 것이지만, 사실 [죄를 지어] 정당하게[법대로] 처형당하는 일은 [죄가 없어 처형당하지 않는 것보다] 바람직한 것[즉,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포스 3. 상관된 것들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상관된 것들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 ‘공정하게 또는 정당하게 행했다’는 것이 한 쪽에 [속성으로서] 들어있다면 [타당하다면], ‘[공정하게 또는 정당하게] 겪었다’는 것이 다른 한 쪽에 [속성으로서] 들어있고[타당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25] 한 쪽에 [속성으로서] 들어있다면, ‘[그것을] 수행했다’는 것이 다른 한 쪽에 [속성으로서] 들어있다. 예를 들어, 징세인이었던 디오메돈이 세금에 대해 “네가 [징세권을] 파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공정하게’ 또는 ‘정당하게’가 겪은 사람에게 [속성으로서] 들어있다면, 그것들은 행한 사람에게도 [속성으로서] 들어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류추론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어떤 것을 겪을 경우, [그는 그것을 정당하게 겪었지만] 아마도 당신 손으로부터 그것을 겪는 것은 [정당하게 겪은 것이] 아닐지도 [30]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겪는 사람이 겪어야 마땅하고 행하는 사람이 행해야 마땅한지를 1397b | 따로 살펴보고 난 뒤에 어떤 쪽으로든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러한 경우에 불일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테오텍테스의 [비극] 《알크마이온》에서 [아내 알페시보이아가] “당신 어머니[에리켈레]를 혐오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라고 묻자, 그[남편 알크마이온]는 “하지만 [이 문제를] 구별해서 살펴보아야 하오.”라고 대답했다. [5] 알페시보이아가 “어떤 식으로요?”라고 묻자, 그는 이어 말했다.

그들은 그녀가 죽어야 한다고 판결했지, 내 손으로 죽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소.

그리고 데모스테네스 및 니카노르 살해자들에 대한 재판도 그렇다. 왜냐하면 그들

이 [니카노르를] 정당하게 죽였다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들은 그가 정당하게[정당한 방식으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테바이에서 살해된 사람에 대한 재판도 그렇다. 그 사람에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10] 그가 죽는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죽어 마땅한 자를 죽이는 것은 부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토포스 4. ‘더와 덜’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더와 덜’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신들조차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 않다면, 하물며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는 “더 들어있을[타당할] 법한 것에 들어있지[타당하지] 않다면, 분명히 덜 들어있을[타당할] 법한 것에도 들어있지[타당하지] 않다.”[는 원칙]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15] 제 아버조차 때리는 자는 이웃들을 때린다는 것[논증]은 “덜 어떠한 것이 [어떤 것에 속성으로서] 들어있다면, ‘더 어떠한 것이 [어떤 것에 속성으로서] 들어있다’는 것[원칙]으로부터 따른다. 이웃들을 때릴 가능성보다 제 아버를 때릴 가능성이 덜 하기 때문이다. 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즉 ‘속성으로서’ 더 들어있는 것에 [어떤 것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덜 들어 있는 것에 들어있지 않다.]’ 또는 ‘속성으로서’ 덜 들어있는 것에 [어떤 것이] 들어있다면, [더 들어 있는 것에 들어있다.]’ 식으로 ‘어떻다’거나 ‘어떠하지 않다’ 중 하나를 [택해] 증명해야 한다.

[토포스 4a. 비슷한 것로부터의 지침] 더 나아가, [20] 더 어떠한지도 않고 덜 어떠한지도 않는 경우도 [이 토포스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구가 나왔다.

당신 아버지는 자식들을 잃어 가엸다.

오이네우스도 [헬라스의] 유명한 자식을 잃어 그렇지 않겠는가?

그리고 [헬레네를 납치한] 테세우스의 행위가 잘못이 아니었다면, [그 후에 그녀를 납치했던] 알렉산드로스[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의 별명]의 행위도 잘못이 아니었고, [여인들을 납치했던] 뉘다레오스의 아들들의 행위가 잘못이 아니었다면, 알렉산드로스의 행위도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헥토르의 행위가 잘못이 아니었다면, [25] 아킬레우스를 죽인 알렉산드로스의 행위도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열등한 자가 아니라면, 철학자들도 열등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자주 처형된다는 이유로 장군들이 열등하다고 하지 않는다면, 소피스트들도 열등하지 않다. 그리고 “한 개인이 당신들[아테네인들]의 명성을 염려해야 한다면, 당신들도 그리스의 명성을 염려해야 한다.”

[토포스 5. 시간 고려에 입각한 지침] [30] 다른 토포스는 시간을 고려함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이피크라테스가 하르모디오스에 맞선 재판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내가 성공했을 경우 동상을 요구했다면, 여러분은 이를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했는데도 여러분은 이를 허락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그러니,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약속하고 그것을 겪은[연인] 뒤에 [그 약속을] 폐기하지는 마십시오.”라고 말한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또 필리포스가 테바이를 통과하여
1398a 아티카로 침입하는 | 것과 관련하여 [마케도니아 사절들이 기원전 339년에] ‘포키스를 공격하는 것을 돕기 전[기원전 346년]에 [필리포스가] 요구했다라면, 그들[테바이인들]은 약속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때] 그 기회를 포기하고 그들을 신뢰했다는 이유로, 지금은 [테바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도 그렇다.

[토포스 6. 되받아침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상대개] 자신에 대해 말한 것[비난들]을 발언 상대에게 되돌리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소포클레스의 비극] 《테우크로스》에 나오는 말이 그렇다. 그러나 이피크라테스가 아리스토포네 맞서 [5] 사용했던 방식은 다르다. 그는 아리스토포네에게 돈을 받고 함대를 배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이피크라테스는 “아리스토포네 당신이 배신하지 않을 거라면, 이피크라테스인 내가 그러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더 부정을 저지를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고소하는 아리스테이데스를 향해 [10]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고소자를 불신하기 위해 그러한 식으로 말할 경우,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소자[원고]가 변호인[피고]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반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고 있거나 할 법한 일들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하길 권한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다.

[토포스 7. 정의로부터 나온 지침] [15] 다른 토포스는 정의(定義)로부터, 예를 들어 ‘신령스러운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신이거나 신의 작품이 아닌가? 하지만 그것이 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신들이 존재한다고 또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피크라테스가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고귀한 것을 행하기 이전에는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키이톤에게 어떠한 고귀한 속성도 들어있지 않았기 [20]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자신은 더 그들과 더 비슷하다고, “적어도 나의 행위들은 너의 행위들보다 더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키이톤의 행위들과 비슷하다.”고 말한 것도 그렇다.

그리고 [플뤼크라테스가 전시연설] 《알렉산드로스》에서, 절도(節度) 없는 자들은 [알렉산드로스처럼] 한 [여인의] 몸을 누리는 데 만족하지 못한다고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렇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마케도니아의 왕] 아르켈라오스를 방문하길 거부한 이유도 그렇다. 그는 [25] 해를 입었을 때 양값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무례라고 말했다. 이 모든 사람[연설자들은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추론한다.

[토포스 8. 다양한 의미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단어들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하여 《변증론 *Topica*》에서 말했듯이, [어떤 단어의] 다양한 의미로부터 나온다.

[토포스 9. 분할에 입각한 지침] [30] 다른 토포스는 분할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 때문에(이것, 저것 또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이 둘 때문에는 불가능한데, 세 번째는 그들[고소자들] 자신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토포스 10. 귀납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귀납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1398b 페파레토스의 여인의 경우에서, | 아이들[의 친부]에 관련해서는 여인들이 어디서든 진실을 정한다고 주장된 점이 그렇다. 이 점을 [플란콘이라는] 친모는 아테네에서 자식과 법정에서 [친자관계 인정에 관련하여] 다투는 연설가 만티아스에게 밝혀주었고, 이 점을 도도나의 여인은 테바이에서 이스메니아스와 스틸본이 법정에서 다투는 때 [그녀가 낳은 자식 테탈리스코스가] 이스메니아스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5] 증명했고, 이 때문에 테탈리스코스는 이스메니아스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또 테오텍테스가 [연설] 《법》에서 “만일 남의 말을 잘 보살피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말을 맡기지 않고, 남의 배를 전복시킨 사람에게는 자신의 배를 맡기지 않는다면, 확실히 모든 경우에 이와 마찬가지로, 남의 안전을 잘 지켜주지 못한 사람을 [10]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고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도 그렇다. 그리고 [소피스트] 알키다마스가 모든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을 존경한다고, “파로스인들은 아르킬로코스를 독설가였음에도 존경했고, 키오스인들은 호메로스를 동료시민이 아닌데도 존경했고, 뮈틸레네인들은 삽포를 여자인데도 존경했고, 문예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던 라케다이몬[스파르타]인들은 [15] 킬론을 원로원의 일원으로 선출했고, 이탈리아인들은 피타고라스를 존경했고, 람프사코스인들은 아낙사고라스를 외국인인데도 장례를 치러주고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고 있고, 아테네인들은 솔론의 법들을, 라케다이몬인들은 뤼쿠르고스의 법들을 사용함으로써 행복했고,

테바이에서는 지도자들이 철학자가 됨과 동시에 국가가 행복했다.”라고 [20] 말한 것도 그렇다.

[토포스 11. 권위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현재의 문제와] 같거나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것에] 반대되는 문제에 대한 [이전의] 판단으로부터 나온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판단한 경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 경우. 아니면 판단자[청중들 자신이, 또는 판단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는 권위자들처럼 [우리가 그들의 판단에 맞서] [25] 반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는 신들이나 아버지나 교사들처럼 [우리가 그들의 판단에 맞서] 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 경우. [아테네의 정치인] 아우토클레스가 므시데미데스에 맞서, “무서운 여신들은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 [친모를 살해한 오레스테스의 고발자로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데 므시데미데스에게는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렇다. 또는 삼포가 “죽음은 나쁜 것이다. 신들이 [30]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신들은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렇다. 또는 아리스티포스가 플라톤이 무엇인가를 너무 독단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우리들의 친구는 적어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소크라테스를 엄두에 두며 말한 것이 그렇다. 그리고 헤게시폴리스가 먼저 올림피아에서 [제우스 신에게] 신탁을 구한 다음에 델포이에서, 그 신[아폴론]에게 그의 생각도 아버지와 같으냐고 — 그에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 부끄러운 일인 양 — 물었던 것이 그렇다. 그리고 이소크라테스가 헬레네에 대해 테세우스가 바로 그렇게 판단했기에 그녀가 훌륭한 여자이고,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여신들이 그를 선호했기에 [그가 훌륭한 남자이고], 이소크라테스가 “어쨌든 고논은 [5] 불운을 당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쳐두고 에우아고라스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다.”고 말하듯, 에우아고라스에 대해 그가 훌륭한 남자라고 쓴 것도 그렇다.

[토포스 12. 하위의 부분들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유에 속한 하위의) 부분(種)들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변증론 *Topica*》에서 ‘혼은 어떤 종류의 운동인가? 왜냐하면 [혼이 운동이라면] 그것은 이러한 운동이나 저러한 운동이기 때문이다.’라고 논하는 경우처럼. [비극작가] 테오텍테스의 《소크라테스》에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어떤 성소(聖所)를 그는 모독했는가?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 중 어떤 신들을 [10] 그는 존경하지 않았는가?”

[토포스 13. 수반되는 것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결과로부터 권고하거나 만류하

고, 고소하거나 변호하고,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동일한 것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에는 나쁜 것으로서 [15] 질투 받음이 따르고, 좋은 것으로서는 지혜로움이 따른다. 그러니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질투 받으면 안 되니까. 다른 한편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혜로워야 하니까.” 이 토포스는, ‘가능한 것’과 앞에서 말한 것들을 더하면, 칼립포스의 [연설의] 기술이다.

[토포스 14. 대립되는 것들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두 가지 대립되는 것에 대해 권고하거나 [20] 만류하면서 앞에서 말한 방법을 사용할 때, 나온다. 그러나 앞의 [토포스의] 경우에는 임의의 두 개가 대립되어 있지만, 이 [토포스의] 경우에는 그 두 개가 [그 자체로]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사제는 아들이 민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왜냐하면 네가 옳은 것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널 미워할 것이고, 그른 것들을 말하면 신들이 널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25] 너는 민중 앞에서 연설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옳은 것들을 말하면 신들이 널 사랑할 것이고, 그른 것들을 말하면 인간들이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소금과 더불어 [소금이 나는] 습지를 산다.’는 속담과 같다. 이 딜레마는 두 개의 반대되는 것 각각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를 때, 각각의 반대되는 것들에 각각의 반대되는 것들이 따를 때, 발생한다.

[토포스 15. 위선에 입각한 지침] [30] 다른 토포스는, 사람들[상대]이 동일한 것들을 두고 마음속으로 칭찬할 때와 같이 공개적으로도 칭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는 옳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꾀이나 칭찬하지만 사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들을 더 바라기 때문에, [연설자] 이런 [상반된] 것들로부터 어느 하나를 이끌어내야 할 때, 나온다. 이 토포스는 패러독스들을 다루기에 가장 효과적인 토포스이다.

[토포스 16. 유비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에 입각한 지침] [35] 다른 토포스는 유비적으로 수반되는 것들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이피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나이가 아직 어린 자기 아들에게 키가 크다는 이유로 공적인 의무를 강요했을 때, 큰 아이들을 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성인을 아이라고 표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399b 그리고 테오텍테스는 《법》에서 “여러분은 스트라박스라든가 카리테모스와 같은 용병들을 그 공훈 때문에 시민으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그들 중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용병들은 나중에 [시민으로서] 추방할[망명시킬] 것인가?”라고 말했다.

[토포스 17. 결과들로부터 원인들로 감에 입각한 지침] [5] 다른 토포스는 결과가 같다면

연설술 1권(A)

그것이 나온 것[전제]들도 같다는 점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크세노파네스는 신들이 태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경스럽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두 경우에서, 신들이 언젠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각각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항상 같은 것이라고 [10]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소크라테스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교육에 관련해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지 판단하려고 한다.”는 말이 그렇다. 그리고 땅과 물을 내쫓은 노예가 됨을 뜻하고, 공동의 평화에 참여함은 명령대로 행함을 뜻한다는 것도 그렇다. [연설자는] 어느 쪽이든 유용한 쪽을 택해야 한다.

[토포스 18. 상반된 선택들에 입각한 지침] [15] 다른 토포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이전과 이후에 항상 같은 것을 선택하지는 않고 그 반대로 선택한다는 점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엔튀메마[연설술적 추론]가 그렇다. “우리는 망명해 있을 때에는 귀국하기 위해 싸웠는데, 귀국한 뒤에는 싸우지 않기 위해 망명하려고 한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사람들은 때로는 싸우는 것을 대가로 본국에 머무는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본국에 머물지 않는 것을 대가로 싸우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

[토포스 19. 목적과 원인을 동일시함에 입각한 지침] [20] 다른 토포스는 어떤 것이 있거나 생겨날 목적이 그것이 있거나 생겨남의 원인이라는 점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나중에 다시 빼앗음으로써 고통을 줄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도 나왔다.

많은 이들에게, 다이몬[신]이 호의를 지녀서,
커다란 행운들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25] 보다 극명하게 불행들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비극작가] 안티폰의 《멜레아그로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도 그렇다.

그들이 그 짐승[멧돼지]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헬라스에 멜레아그로스의 용기에 대한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테오렉테스의 《아이아스》에 나오는 것, 즉 디오메데스는 오디세우스를 존경하기 위해 [30] 그를 선택하지 않고, 이 동반자가 [자신보다] 열등하도록 선택했다는 것도 그렇다. 그는 이 목적으로 선택을 했을 수 있다.

[토포스 20. 행동 목적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법정에서 다투는 사람들과 조언하는 사람들에 공통된 토포스로서, 권고하는 것들과 만류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하고 행동하길 꺼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35] 그것들은 그것들이 있을 때에는 행동해야 하고, 없을 때에는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가능하고 쉽고 자신이나 친구들에게 이로운지 또는 적들에게 해로운지, 그리고 [그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처벌이 실리(實利)보다 작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들을 근거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1400a 권고하고 |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근거로 [어떤 행위를] 만류한다.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사람들은 변호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한다. 그들은 [범행을] 만류하는 것들을 근거로 [무죄를] 변호하고, [범행을] 권고하는[부추기는] 것들을 근거로 고소한다. 이 토포스는 팜필로스와 칼립포스의 [연설의] 기술 전부이다.

[토포스 21. 믿기 힘든 것들에 입각한 지침] [5] 다른 토포스는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믿기 힘든 것[일들]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만일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가까스로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설자는] 그래서 더욱 그렇다고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것들이나 개연적인 것들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일 어떤 것이 믿기 힘든 것이나 개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인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개연적이고 믿을만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토스 구역의 안드로클로스가 법을 비난하는 말을 할 때 [10] [청중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자, “법들은 그것들을 시정할 법이 필요하고, 물고기도 — 바닷물에서 자란 물고기가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개연적인 것이 아니고 믿을만한 것도 아니지만 — 소금이 필요하고, 압착된 올리브도 — 그로부터 기름이 나오는 것이 기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믿기 힘든 것이지만 — 기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경우가 그렇다.

[토포스 22. 불일치한 점들에 입각한 지침] [15] 다른 토포스는 반박적인 것으로서, 장소, 시간, 행위, 말에서 불일치한 점들을 [세 가지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이를 다투는 상대에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그는 여러분들[아테네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30인 참주와 공모했다.” 둘째, 이를 [연설자] 자신에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그는 내가 소송 걸기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20] 내가 한 번이라도 재판을 한 적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 셋째, 이를 [연설자] 자신과 다투는

연설술 1권(A)

상대에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그리고 그는 돈을 한 푼도 빌려준 적이 없지만, 나는 돈을 주고 여러분들을 많이 해방시켰다.”

[토포스 23. 그릇된 인상의 원인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편견을 [실제로] 당하거나 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행위들에 관련하여 그런 잘못된 인상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다. [25] 그렇게 보이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쓰다듬었을 때, 지나친 애무 때문에 그 청년과 성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녀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 비난으로부터 풀려났다. 그리고 테오텍테스의 《아이아스》에서 오디세우스가 아이아스에게, 그가 아이아스보다 더 용감한데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이유를 말한 것도 그렇다.

[토포스 24. 원인과 결과에 입각한 지침] [30] 다른 토포스는 원인[과 결과]으로부터 나온다.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 원인과 그 원인의 결과는 공존하고, 원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 레오다마스가 그의 이름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돌기둥에 [민중의 적으로서] 새겨져 있었는데 30인회의 시절에 빼냈다는 트라쉬볼로스의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며 말한 것이 그렇다. [35] 그는 민중에 대한 자신의 적의가 새겨진 채로 있었다면 30인회가 자신을 더 신뢰했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포스 25. 더 나은 계획에 입각한 지침] 다른 토포스는 조언하거나 행동하거나 행동했던 것들과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을 수 있지 않았는지 또는 있지 않은지를 1400b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 만일 사정이 이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알면서도 나쁜 것을 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나았는지가 나중에 분명해지고, 그 이전에는 불분명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토포스 26. 반대되는 것들의 비교에 입각한 지침] [5] 다른 토포스는 이전에 했던 것들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이 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엘레아 사람들이 레우코테아에게 희생물을 바치면서 애도의 노래를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었을 때, 크세노파네스는 그들이 그녀를 신으로 생각하면 애도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그녀를 인간으로 생각하면 희생물을 바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토포스 27. 잘못된 일들에 입각한 지침] [10] 다른 토포스는 잘못된 일들로부터 고소하거나 [10] 비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극작가] 카르키노스의 《메데이아》에서 사람들은 메데이아가 자식들[두 아들]을 죽였다고, 적어도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소하지만(그녀는 자식들을 멀리 내보내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녀는 [죽였다면] 자식들뿐만 아니라 [배신한 남편] 이아손도 죽였을 것이라고, 이는 그런 일을 하고서도 이 일을 [마져] 하지 않았다면 잘못일 것이기 [15]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엔튀메마[연설술적 추론]의 이 토포스와 종류는 테오도로스 이전의 [연설]의 기술 전부이다.

[토포스 28. 이름에 입각한 지침] [5] 다른 토포스는 이름[의 의미]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소포클레스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그렇다.

이름[시테론] 그대로 당신[튀로의 계모]은 분명 죄와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들에 대한 찬사들에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20] [해군 지휘관] 코논이 [민주파 지도자] 트라쉬볼로스를 트라쉬볼로스[과감히 조언하는 자]라고 부르고, [의사] 헤로디코스가 [소피스트] 트라쉬마코스에게 “자네는 항상 트라쉬마코스[과감히 싸우는 자]야.”라고, 그리고 [연설술 작가] 폴로스에게 “자네는 항상 폴로스[망아지]야.”라고, 그리고 입법가 드라콘에 대해 그가 만든 법들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드라콘[뱀]의 법이라고 말한 것도 그렇다(그 법들은 잔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트로이아 여인들》에서] [트로이아 왕비] 헤카베가 아프로디테에 관련하여 “그리고 그 여신의 이름은 마땅히 아프로쉬네[어리석음]처럼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25] [비극작가] 카이레몬이 [테바이의 왕] 펜테우스의 이름은 미래의 불행[에 대한 쾨토스(비탄)]에서 따온 거라고 말한 것도 그렇다.

그러나 엔튀메마들[연설술적 추론] 중에서도 반박적인 것들이 증명적인 것들보다 더 평이 좋다. 왜냐하면 반박적인 엔튀메마는 [상대의 결론에] 반대되는 점들을 간결하게 모아 결론을 내리고, 그것들이 [상대의 것들과] 나란히 대조되어 청중에게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박적이든 증명적이든 [30] 모든 추론들 중에서도, 시작되었을 때 청중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예견하는 성질의 것들이(왜냐하면 사람들은 [연설을 들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결론을] 예감할 때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하자마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자신들이 늦게 이해하는 성질의 것들이 가장 많이 [청중의] 호응을 얻는다.

24장. 사이비 엔튀메마

그러나 추론에 진짜 추론이 있는가 하면, 진짜는 아니지만 [35] 그렇게 보이는[사이비(似而非)] 추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엔튀메마가 일종의 추론이라면, 엔튀메마[연설술적 추론]에서도 진짜 엔튀메마가 있는가 하면, 진짜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사 1401a 이비] | 엔튀메마가 있어야 한다.

사이비 엔튀메마들의 [공통된] 토포스들 중 한 가지는 언어적 표현에 기인한다. [토포스 1a. 불완전한 추론의 오류] 이 토포스의 일부는, 변증술적인 것[추론]들에서처럼, [타당한] 추론 과정을 거치고서 마지막의 문장을 [추론의] 결론으로 말하지 — ‘따라서 이리이러하지 않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리이러하다’고 말하지 — 않는 것[오류]이다. [5] 그리고 엔튀메마[연설술적인 추론]들에서는 압축적으로 그리고 대립적으로 말하는 것이 엔튀메마인 것처럼 보인다(바로 그러한 언어적 표현이 엔튀메마의 본고장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오류]은 언어적 표현의 형태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으로써 [연설술적] 추론의 방식으로 말하는 데에는 몇몇 추론들의 요점[결론]들을 말하는 것이 [10] 유용하다. [예를 들어,] 그[퀴프로스 살라미스의 왕 에우아고라스]는 어떤 사람들을 구했고, 다른 어떤 사람[적]들에게는 복수했고, 그리스인들을 해방시켰다고 [말하는 것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점들 각각은 다른 것[증거]들로부터 증명된 것이지만, 그것들이 결합되면 그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결론]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토포스 1b. 애매어의 오류] 그 토포스의 다른 일부는 [단어의] 다의성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그렇다. 「뫼스[생쥐]는 존경스런 동물이다. 그 이름으로부터 모든 입교의식들 중 가장 명예로운 의식[의 이름, 즉 뫼스테리아]이 나오기 때문이다. [15] 왜냐하면 [엘레우시스에 대한] ‘뫼스테리아[신비의식]가 모든 입교의식들 중 가장 명예롭기 때문이다.」 또는 누군가가 개를 찬양하면서 하늘에 있는 별자리[큰개자리]라든가, 아니면 [서정시인] 핀다로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목신(牧神)] 판을 거들어 델 때에도 그렇다.

오, 행복한 자! 올림포스의 신들이 위대한 여신[퀴벨레]을
따르는 여러 가지 모습의 개라 부르는 자여.

[20] 또는 [누군가가] ‘개[견유학과 철학자]가 아니다’는 것은 지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므로, ‘개이다’는 것은 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렇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들 중 가장 ‘코이노스’한[사교적인] 신이다. 왜냐하면 [행운의 신] 헤르메스만이 ‘코이노스’[공유하는 재]라 불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로고스’[말]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은 금전의 값어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로고스’[존경]의 값어치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다]. 왜냐하면 ‘로고스의 값어치가 있다’는 말은 한 가지 의미로 쓰이지 않기 [25] 때문이다.

[토포스 2. 결합과 분할의 오류; 누락의 오류] [사이비 엔튀메마들의] 또 다른 토포스는 한 가지는 분할된 것을 결합하여 말하거나, 결합된 것을 분할하여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때로는 같은 것이 아닌 것들이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로서는 자신에게] 더 이로운 쪽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우튀데모스의 다음과 같은 논증이 그렇다. 「페이라이에우스 항(港)에 삼단노선이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각각의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모(字母)를 [30] 아는 사람에 대해 「그는 시구(詩句)를 안다. 왜냐하면 시구는 [자모와] 같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일정량의 두 배는 몸에 해로우므로, 그 일정량도 몸에 좋지 않다. 왜냐하면 두 개의 좋은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나쁜 것이 된다면, 불합리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반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 증명적이다. 즉, 「[일정량의 두 배는 몸에 좋다.] 왜냐하면 하나의 좋은 것이 두 개의 나쁜 것[이 합쳐진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토포스는 전부 오류추론이다. 또한, [35] [소피스트] 폴리크라테스가 [민주파 지도자] 트라쉬볼로스에 관련하여 그는 30인의 참주들을 무너뜨렸다고 말한 것도 그렇다. 그는 [30인의 참주제인데, 30인을 모두 참주로 보고 이들을] 결합시켰기 때문이다. 또는 [비극작가] 테오텍테스의 《오레스테스》에 나오는 말도 그렇다. 그것은 분할된 것들로부터 나온 것[결합]이다.

「옳은 일이다. 남편을 죽인 여자가,

1401b 그 여자가 죽는 것은,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은. | 그러므로 이들이 결합되어 행해진 것도 옳은 일이다.」 [이것도 오류추론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합되었을 때에는 이미 옳은 일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누락의 오류이기도 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 [죽는 것이 옳은지]’를 빼놓고 있기 때문이다.

[토포스 3. 과장의 오류] [사이비 엔튀메마들의] 또 다른 토포스는 과장에 의해 자신의

연설술 1권(A)

주장을 세우고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한쪽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다른 쪽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5] 않은 채, 그 일을 부각시킬[과장할] 때 성립한다. 다시 말해, 피고는 [어떤 일을] 부각시킬 때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고소인은 [어떤 일을] 부각시킬 때 피고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든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엔튀메마[연설술적 추론]가 있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청중은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또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잘못 추리하기 때문이다.

[토포스 4. 필연적이지 않은 표시의 오류] [사이비 엔튀메마들의] 또 다른 토포스는 [필연적이지 않은] 표시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추론이 [10]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연인들은 도시들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키톤의 사랑은 참주 히파르코스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디오뉴시오스는 도둑이다. 왜냐하면 그는 악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 이것은 분명히 [제대로 된] 추론이 아니다. 도둑은 모두 악인이지만, 악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도둑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토포스 5. 우연성의 오류] [사이비 엔튀메마들의] 또 다른 토포스는 [15] 우연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를 들어, [소피스트] 폴뤼크라테스는 생쥐들에 대해 [예찬하며] 「이것들은 [침입자 아시아인들의] 활시위를 잡아먹음으로써 [이집트인들을] 도왔다.」고 말한 것이 그렇다. 또는 누군가가 「만찬에 초대 받는 것은 지극히 명예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만찬에 초대 받지 못해서 아킬레우스는 테네도스에서 아카이아인들에게 격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 그러나 그는 존경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격노했고, 때마침 그가 만찬에 초대 받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토포스 6. 귀결의 오류] [20] [사이비 엔튀메마들의] 또 다른 토포스는 [거짓 가정에 따른] 귀결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피스트 폴뤼크라테스의 전시연설] 《알렉산드로스[파리스]》에서 「그는 고매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대중과의 교제를 멸시하며 이다 산에서 홀로 하루를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 그렇다. 고매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므로, 그도 고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는 멧 부린 차림으로 밤에 돌아다니므로 바람둥이이다. 왜냐하면 바람둥이는 그러한 남자들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전(神殿)에서 [25] 거지들은 [구걸하며] 노래 부르고 춤춘다. 망명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한

것들은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들어있는[타당한] 성질이므로,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어떻게[어떤 상황에서 그러는지]’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누락의 오류로 분류된다.

[토포스 7. 거짓 원인의 오류] [사이비 엔튀메마들의] 또 다른 토포스는 원인이 아닌 것을 [30] 원인으로 간주함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다른 어떤 것과 더불어 또는 그것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 그렇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특히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뒤에 [일어난 일]’를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마테스가 「테모스테네스의 정책은 [지금 아테네에 있는] 모든 악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그의 정책 이후에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 그렇다.

[토포스 8. 절대적인 의미와 제한된 의미를 혼동하는 오류] [사이비 엔튀메마들의] 또 다른 토포스는 ‘언제’와 ‘어떤 방식으로’를 누락함에 달려 있다. [35] 예를 들어, 「알렉산드로스[파리스]가 헬레네를 얻은 것은 옳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텐다레오스]가 [남편] 선택을 그녀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다. [이것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허락된 것이 아니라 처음 한 번만 허락된 것이었을 1402a 것이기 |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힘이 미치는 것은 그때까지이기 때문이다. 또는 누군가가 「자유인들을 때리는 것은 폭행죄이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렇다. [이것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고, 먼저 때려 죄를 범한 경우에만 그렇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변증술의] 쟁론적인 것[추론]들에서처럼 ‘절대적으로 어떻게’와 ‘절대적으로 어떻게’와 ‘어떤 점에서 어떻게’[를 혼동함의]로부터 사이비 추론이 [5] 생긴다. 예를 들어, 변증술적인 것[추론]들에서 「있지 않은 것이 있다. 왜냐하면 있지 않은 것은 있지 않은 것으로서 있기 때문이다。」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와 같은 것들이 있듯이, 또한 연설술적인 것[추론]들에서도 ‘절대적으로 개연적이지 않고, 어떤 점에서 개연적인 것’으로부터 사이비 엔튀메마가 나온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개연적인 것은, [비극작가] 아가톤도 다음과 같이 [10] 말하듯이, 보편적이지 않다.

아마도 누구든 이 점만큼은 개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설술 1권(A)

즉, 개연적이지 않은 일들이 인간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점.

왜냐하면 개연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개연성에 어긋나는 일도 개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다면, 개연적이지 않은 일도 개연적일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15] [변증술의] 쟁론술적인 것[추론]들의 경우에서 ‘어떤 점에서’, ‘어떤 것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가 덧붙여지지 않을 때 궤변이 만들어 지듯이, 여기[연설술]에서도 절대적으로 개연적이지 않고 어떤 점에서 개연적인 것으로부터 그러한 것이 나온다. [연설술의 창시자] 코락스의 연설술은 그러한 토포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발을 당할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허약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개연적이지 않다며) 폭행죄를 부인한다. 그리고 고발을 당할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20] 예를 들어 힘이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개연적이라고 생각될 게 확실하므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개연적이지 않다며) 폭행죄를 부인한다.」 다른 경우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왜냐하면 고발을 당할만한 사람이거나 고발을 당할만한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양쪽 모두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만, 한[허약한] 쪽만 [실제로] 개연적이고, 다른[힘이 센] 쪽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개연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약한 논증을 강한 논증으로 만든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래서 [25] 사람들이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적인] 선언에 거부감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진실이 아니라 사이버 개연성이고, [그릇된] 연설술과 쟁론술 말고는 다른 어떤 기술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25장. 추론의 해체

엔튀메마들에 관하여, 실제로 그런[타당한] 것들과 그런 것들로 보이는[부당한] 것들에 관하여 [30] 말했다. 그것들에 관한 논의에 이어서, 이제 [상대 추론의] 해체에 관하여 말해야 한다. 이 해체는 [그것에] 반대되는 추론을 펼치거나 [상대의 전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분명히, 반대되는 추론을 펼치는 것은 (추론의 경우와) 같은 토포스들로부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론들은 통념들을 전제로 삼는데, 그런 의견들은 많은 경우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의제기는, [35] 《변증론 *Topica*》에 나와 있듯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즉, 그것은 (a) 상대의 것[엔튀메마]으로부터, 또는 (b)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부터,

또는 (c)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또는 (d) 이미 참이라고 판단된 것들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a) ‘상대의 것[엔튀메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만일 사랑에 관하여, 「그것은 좋다」는 | 엔튀메마가
 1402b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보편적으로, 「모든 결핍은 나쁘다」[고, 그리고 사랑은 어떤 것의 결핍이라]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특수하게, 「나쁜 사랑도 있지 않았다면 카우노스적인 사랑이란 말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c) [상대의 엔튀메마에]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만일 「선한 사람은 [5] 모든 친구들에게 잘 해준다」는 엔튀메마가 있다면, 「그러나 악한 사람도 모든 친구들에 잘못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b) [상대의 엔튀메마에] 비슷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해를 입은 사람은 항상 [해를 가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엔튀메마가 있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도 항상 [은혜를 베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d) 저명한 사람들에 의해 [이미 참이라고] 판단된 것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만일 누군가가 「술 취한 사람[의 실수는 [10] 용서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기 때문이다.」라는 엔튀메마를 말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렇다면, 피타코스는 칭찬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술에 취해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큰 [두 배의] 형벌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엔튀메마들은 네 가지 것[전제]들로부터 나오고, 이 네 가지 것들은 (a) 개연적인 것, (b) 본보기, (c) [필연적인] 증거, (d) [필연적이지 않은] 표시이다([15] (a) 대체로 어떠하거나 어떠하게 보이는 것[전제]들로부터 나온 엔튀메마들은 개연적인 것들로부터 나온 것들이고, (b) 비슷한 것으로부터 — 이것이 하나든 둘이든 — 귀납함으로써, 보편적인 것을 얻은 다음 개별적인 것들을 본보기를 통해 추리할 때, 나오는 엔튀메마들은 본보기를 통한 것들이다. 그리고 (c) 필연적이고 항상 어떠한 것을 통한 엔튀메마들은 [필연적인] 증거를 통한 것들이고, (d) 특수한 것 안에 든 [20] 보편적인 것을 — 이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 통한 엔튀메마들은 표시들을 통한 것들이다). 그리고 개연적인 것은 ‘항상’ 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참인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엔튀메마들 중 [(c)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한[개연적인] 것들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항상 해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해체는 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개연적이지 않다며 [상대의 추론을] 해체하지 않고, 어떤 것이 필연적이지 않다며 [그것을] 해체하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25] 그런 오류추론으로 말미암아 항상 고소하는 사람보다 변호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고소하는 사람은 개연적인 것들을 통해 증명하고, 개연적이지 않다며 [상대의 추론을] 해체하는 것과 필연적이지 않다며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같지 않고, 대체로 참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그렇지 않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개연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참이고 필연적인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으로 [30] 해체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오류추론에 빠져 재판관은 그것이 개연적이지 않거나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가 오류추론에 빠진 까닭은 그는 필연적인 것[논증]들로부터만 판정하지 않고, 또한 개연적인 것들로부터도 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최선의 판단에 의해 판정을 내린다’는 말의 뜻이다). 그러므로 필연적이지 않다며 [상대의 추론을] 해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연적이지 않다며 [그것을] 해체해야 한다. [35] 이는 이의제기가 [상대의 추론] 보다 대체적[으로 참]일 경우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의제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즉 ‘시간[빈도]에 의해’서나 아니면 ‘[많은] 사실들에 의해’ 가능한데, 이 둘이 합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더
1403a 많이 | 더 빈번히 어떠한 때, 그것은 보다 더 개연적이기 때문이다.

표시들은, 그리고 표시에 의한 엔튀메마로 말해지는 것들은, 참이라 할지라도, 앞의 논의들에서 말했듯이, 해체될 수 있다. 모든 [해체될 수 있는] 표시들은 엄밀하게 추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석론 *Analytica*》으로부터 우리에게 [5] 분명하다.

본보기들에 의거한 것[엔튀메마]들에 대한 해체는 개연적인 것들의 경우와 같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상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은 어떤 한 가지 것[사례]을 확보한다면, 더 많이 더 빈번히 그렇[게 상대의 입장을 지지]한다하더라도 [상대의 추론은] 필연적이지 않기에 해체된다. 다른 한편으로, 더 많이 더 빈번히 그렇[게 상대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상대의] 현재의 사례가 그것들과 비슷하지 않다거나, [10] 비슷한 방식이 아니라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그것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필연적인 또는 확실한] 증거들은, 그리고 증거들에 의거한 것[엔튀메마]들은 엄밀하게 추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해체될 수 없다(이 점은 또한 《분석론》으로부터 우리에게 분명하다). 상대가 말한 사실이 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일만이 남는다. 그러나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증거라면, 이미 그것은 해체될 수 없는 [15] 것이 된다. 왜냐하면 모든 [필연적인] 것[전제]들에 의해 이미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26장. 보태는 말

확대[부각]와 축소는 엔튀메마[연설술적 추론]의 요소가 아니다(여기에서 요소는 토포스와 같은 말이다. 다시 말해, 많은 엔튀메마들은 요소와 토포스로 분류된다). 확대와 축소는 — 어떤 것이 좋거나 나쁘다 또는 옳거나 그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20] 엔튀메마와 마찬가지로 — 어떤 것이 크거나 작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엔튀메마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추론들과 엔튀메마들의 주제들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것들 각각이 엔튀메마의 토포스가 아니라면 확대와 축소도 토포스가 아니다.

해체적인 엔튀메마[반박]들은 [25] [구축적인 엔튀메마들과 별개인] 엔튀메마의 독립된 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점을 [추론을 통해] 보여주거나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상대의 추론을] 해체하지만, [어떤 점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의 결론에] 대립되는 것을 맞받아 증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이고, 이를 해체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다는 점을 보인 경우, 그리고 상대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고, 그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인 경우처럼. 그러므로 둘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왜냐하면 둘 모두 같은 것[추론 방식]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30] 다시 말해, 그들은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이는 엔튀메마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의제기는 엔튀메마가 아니라, 《변증론 *Topica*》에서 말했듯이, 상대의 논증이 [제대로 된] 추론이 아니라는 점 또는 어떤 거짓인 전체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의견을 말하는 일이다.

연설에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세 가지가 있다. [35] 본보기들과
1403b 격언들과 엔튀메마들과 | 일반적으로 사유[착안 또는 발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는 그만큼 말해 두자. 언어적 표현과 [연설의 부분들의] 배열에 관하여 훑어보는 일이 남았다.